

#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11호

# 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청정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시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

## 01 다채로운 이벤트

캐나다/ 포모사/ 카메룬/ 호주/ 미국

## 0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의 경지로 함께 오르자

## 14 시

한가로운 시간에 누리는 즐거움

## 15 건강소식

빛과 소리 요법

## 17/ 28/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최신 오디오 테이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간행물/ 세상을 향한 스승님의 가르침-- 1993년 세계 순회강연

## 18 당신은 모르실 거야

교회, 모스크, 사원, 피라미드의 참뜻

## 19 이야기 세상

단체명상의 이로움/ 믿을 수 있어요!!

## 20/ 26 지혜어록

전 행성을 위한 단체명상/ 진정한 보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 21 수행의 길목에서

관음법문이 나를 변화시키다/ 신성한 보호막/ 기적같은 신의 손길로 거듭나다

## 27/ 35 감로법어

## 30 주목할 만한 책

칭하이 무상사 1993년 세계순회강연 시리즈

## 31 수행을 돌아보며

자유의 여신상에서 얻은 통찰력

## 3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믿음의 가치

## 34 스승과 제자사이

나의 유일한 이여

## 35 사랑의 바다를 이루는 물방울들

부모님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다

## 36 신기한 감응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스승님의 이름을 불러라

## 39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

수행자와 배고픈 귀신

## 40 관음 웹사이트

## 41 사제간의 농담

항상 나뉘요!!/ 우리 집 부엌에 불이 났어요/ 하나가 모자라요

## 42 전 세계 연락처

## 46 매체보도

캐나다 <Tham My>/ 미국 <Me Vietnam>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11호

출판일자 : 2000. 8. 5.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林 永 心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소식

### 로저스 텔레비전에 스승님의 강연이 방영되다

[토론토] 토론토 입문자들은 이제 스승님의 축복에 힘입어 영상강연회를 통한 일상적인 흥법 외에도 텔레비전을 통한 흥법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유선방송을 통한 비디오강연으로 대(大)토론토, 미시사우가, 브램프턴 지역에 살고 있는 3백만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텔레비전에 스승님의 비디오를 방영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다양한 종교단체와 영적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HICMC(The Horizon Interfaith Communication Media Council)의 회원이 되었다. 종파를 초월한 이 모임의 목적은 로저스 유선방송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에 방영하는, 다양한 종파의 가르침과 구도수행을 주로 다루는 TV 시리즈 'Horizon'을 위해 할당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Horizon' 프로의 새 회원으로서 우리는 스승님 비디오 강연을 아래의 일정에 맞춰(모두 일요일) 27분 30초씩 방영할 수 있게 되었다:

로저스 텔레비전 채널10

5월 21일 오전 11시 (동부표준시각)

6월 4일 정오12시 (동부표준시각)

6월 18일 오전 11시 (동부표준시각)

추가방영 날짜는 허가를 받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

###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박람회

[밴쿠버] 밴쿠버 입문자들은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박람회'에서 전시대를 하나 배당 받게 되어 무척 기뻐다. 우리는 대중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큰 기쁨을 맛봤다.

우리 전시대에서 방영되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려고 계속 왔다 갔다하는 인접한 전시대 운영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전시대는 수많은 이들의 방문을 받았다. 인접해 있는 어떤 전시대를 운영하던 한 여인이 스승님의 음성이 매우 부드럽다고 말하면서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지켜봤다. 모든 방문객들이 스승님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견본책과 잡지를 가져갔다.

침술과 같은 동양의 치료법들이 이제 서구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박람회에 중국침술요법 전시대가 차려진 것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곧 침술요법 전시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전시대를 방문해 중국어로 된 견본책과 잡지를 가져갔다. 나중에 우리는 로비에 앉아 가져간 책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람회 기간 내내 별도의 공간에서는 세미나가 계속 열렸다. 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에 걸쳐 1시간씩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참가자들이 질문을 해왔다. 스승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며 비디오 테이프 몇 개를 빌려갔는데, 며칠 후 다시 와서 다른 테이프들과 교환해 간 그는 다음 일요일에 와서 방편법을 배웠다.

박람회가 열린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었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여럿 만났다. 그들은 모두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 아름다움을 감탄해마지 않았다. 우리는 스승님의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이처럼 멋진 기회를 가졌던 것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이처럼 스승님을 알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가 또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한다. ☆

스승님의 감미로운 음성에 매혹된 사람들이 밴쿠버센터 전시대에 멈춰 서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관람하거나 문의하다.



# 포모사 소식

## 새 천년 페인트공 스포츠 축제에서 펼친 의료봉사

[타이베이] 3월 12일 기륭의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국제 스포츠 연합 주관으로 새 천년 페인트공 스포츠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타이완 외무국과 타이베이 주재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 경제문화부 직원들 사이의 친분을 다지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다. 다수의 외국인들이 참가한 '페인트공으로 싸우는 게임'을 비롯해서 이번 스포츠 축제에는 오토바이 스텐트 시범 경기와 중국 무술시범경기, 무용 공연, 전통 민속 예술과 운동 등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되었다. 행사 당국은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맡겼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동수들은 스승님의 음악 CD를 틀어 경기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동수들이 제공한 의료상담과 서비스에는 혈압측정, 한약처방, 침술치료, 안과진단, 외과 및 치과진찰 등이 속했다.

우리 단체를 소개하는 방송이 나가자 외국인 방문객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전시대로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의자를 준비해야만 했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견본책과 잡지도 나눠주었는데, 그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나눠준 책들을 관심 있게 읽었다. 신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과 영혼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우리 전시대를 찾아온 모든 이들은 육신에 대한 ★핍만이 아니라 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까지



포모사 외무국 직원들과 포모사 주재 외국인 외교관들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동수들

받았던 것이다.

## 청명선삼(淸明禪三)

[시후] 포모사에서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연휴였다. 그 가운데 마지막날인 4일은 특히 별초(伐草)하는 날이었는데, 이 기간에 포모사 입문자들은 시후센터에서 특별 선(禪)을 개최했다. 이번 선삼(禪三)은 행사 도중에도 참가할 수 있어서 동수들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선에 참가할 수 있었던 드문 기회였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입문자 가족들도 시후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런 융통성 있는 배려 덕분에 많은 입문자들이 선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들이 처놓은 색색의 텐트로 센터는 활기가 가득 했었다.

선 참가자들은 열심히 명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별초를 했다. 스승님께 입문하고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의 조상은 이미 더 좋은 세상으로 떠났거나 윤회의 사슬을 벗어났을 것이다.

선 기간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순회강연이 성사되기를 기원했다. 이를 위해 포모사의 모든 센터는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 명상할 것을 요청 받았다.



## 카메룬 소식

### 열정이 넘치는 콤바의 새 입문자들

[콤바] 열정 가득한 새 입문자들이 타인을 도우려는 열렬한 마음에서 콤바에 복음을 전하는 강연회를 기획했다.

이 행사를 위해 모든 이들이 합심해서 일했는데,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스승님의 힘이 었다. 카메룬에서는 이런 행사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었지만, 신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듯 모든 일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영상강연회를 단 이틀 앞두고 동수들은 장소를 임대하고 안내서를 인쇄했으며 전 지역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라디오와 확성기로 광고를 내보냈다. 당일 행사는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했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크게 진보했는가를 잘 드러내 주는 활발한 질의응답 순서가 그 뒤를 이었다.

강연회를 마친 후 방편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빛과 별을 보거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생사의 터널을 보는 등의 많은 체험을 했다.

그곳 사람들의 단순한 마음에 우리는 정말 크게 감동했다. 콤바에 입문자의 숫자가 대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곳의 동수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단체명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

## 호주 소식

### 바이런 베이에 세워진 새 센터

[바이런 베이] 브리즈번 센터의 동수들 도움으로 지난 일 년 간 바이런 베이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강연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들 강연회는 엄청난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스승님의 사랑으로 한껏 고양된 분위기에 젖어들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위대한 유산을 인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합류했다. 이들 강연회를



새 센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바이런 베이 입문자들

통해 최근에 입문하게 된 몇몇 사람들은 클론지역에서 열리는 단체명상에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오고 ☆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입문을 기다리며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다.

## 미국 소식

### 1999년 유럽순회강연 특집 영상강연회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2000년 3월 25일 토요일 LA 남쪽에 위치한 남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서는 스페인어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1999년 유럽순회강연의 첫 순서였던 스페인 마드리드 강연을 상영하는 영상강연회가 열렸다. 이번 영상강연회는 산타아나 시내 상가지역과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장소로 잘 알려진 에벨 클럽이라는 곳에서 열렸다.

일반인에게 스승님을 소개하는 전단지과 안내책자가 다채로운 스페인어로 수천 장 인쇄되어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배포되었다. 이 일은 지역 입문자들의 헌신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또 산타아나의 주도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스승님의 모습을 담은 멋진 포스터가 많이 나붙었다.

며칠 동안 동수들이 헌신적으로 일한 결과, 상가지역을 지나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전단지와 안내책자가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행사를 위해 고용된 안전요원들까지도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전단지 배포하는 일을 도왔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곳의 한 경찰관이 이처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본 적이 없다며 우리 강연회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우선 한 입문자가 나와 스페인어로 스승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간단히 소개했다. 그런 뒤 이어서 스승님의 마드리드 강연이 상영되었다. 강연회 중간에 맛있는 채식이 제공되어 강연회 참석자들은 훌륭한 채식을 즐기는 동시에 다른 참석자들이나 입문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스승님의 예술작품과 간행물,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전시실이 강연회장 옆에 마련되어 사람들은 스승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간행물 등을 둘러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진리를 설하는, 유머와 지혜로 가득한 스승님의 말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비디오 상영에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신실한 구도자들의 수준 높은 질문들이 쇄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비디오 강연을 보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에 남아 방편법을 배우려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하며 기뻐했는지! 그 뿐 아니라 영상강연회가 끝난 다음에도 이 지역 연락인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관한 문의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

최근에 열린 이 영상강연회는 민족공동체를 대상으로 LA센터가 기획한 두 번째 홍법 강연회다. (작년 가을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영상강연회가 처음)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 은총을 통해 LA센터는 앞으로도 이 지역을 다양한 문화의 집산지로 ★는 서로 다른 민족공동체에 신의 성스런 메시지를 전하는 흥미롭고 고귀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승님의 1999년 유럽순회강연 비디오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나와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 로스앤젤레스에 자리한 ‘시와 음악의 전당’이 성대하게 문을 열다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담은 간행물과 예술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서점이 문을 열었다. ‘심미의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 열성 팬들의 열렬한 요청으로 아시아 빌리지에 세워진 ‘시와 음악의 전당’이라는 이름의 서점이 드디어 성대한 개업식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특별손님과 미디어 관계자들을 맞이할 때 ‘시와 음악의 전당’

분위기는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한껏 충만 되어 있었다. PD 에바 맥커원을 포함한 KSCI 채널18 관계자들과 방송매체인 National Digital Television Center, Saigon Radio Hai Ngoai, 일간신문 〈Chinese Worldwide Liberty Times〉, 〈Nguoi Viet〉, 〈Vien Dong〉, 월간지 〈Van Hoa〉 등 언론 방송 매체의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대거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처럼 먼 곳에서 온 축하객도 있었다. 이 행사는 여러 귀빈들로 인해 더욱 빛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유명인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설적 작곡가 팜 두이, 투 호, 가수 르 웬, 예술가 두이 랑, 두이 코웅, 예술가이자 라디오 프로 진행자인 쿠옥 타이와 쿠인 후웅, 안 반 트란 교수, 영화배우 마이 푸웅, 예술가 푸웅 부, 변호사 쿠웅 랑 르, 웨스트민스터 전직 시장 캐시 부코즈, 민 랑 트란 목사 등.

서점 ‘시와 음악의 전당’에는 칭하이 무상사의 책과 잡지,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는 물론이고 그림과 시, 음악, 의상 및 보석디자인 작품 등 칭하이 무상사의 다양한 창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시안 빌리지에 자리잡고 있는 아늑한 공간, ‘시와 음악의 전당’에는 다양한 차와 특별 채식스낵이 마련되어 있고 광장이 내다보이는 발코니도 있어 비오는 날 기나긴 오후를 보내기에 이상적이다.

다음은 성대한 개업식에 참석한 특별손님들이 남기고 간 말이다:

“여기 불사에 영적인 음악을 위

한 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다.” — 가수 두이 황.

“스승님이 계심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는다. 이 서점은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이곳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스승님과 좀더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 가수 르 웬.

“여기 오기 전에는 다소 피곤했는데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좋아졌다. 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이가 같은 이상과 목적을 품고 자신들의 단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스승님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서점의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서점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 받기를 희망한다. 또 오늘 내가 느꼈던 이 감동을 다른 이들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영화배우 마이 푸웅.

“난 센터의 활동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문학과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한 뜻깊은 활동이다. 지역활동가, 예술가, 가수, 언론매체 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난 여기 있는 그림이나 의상디자인 등 모든 예술품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일간지 <Vien Dong>의 황 독 능우 웬.

“오늘 내가 방문한 이곳의 분위기는 사랑과 기쁨이 넘친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더 없이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든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곳에 와 보면 좋을 것이다. 영적인 음악을 위한 이곳 센터에 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 가수이자 Saigon Overseas Radio 진행자인 쿠옥 타이.

“이 성대한 오픈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난 깜짝 놀랐다. 내부설계와 장식, 구조들이 상상을 초월해 있었다. 너무도 아름다웠다.” — 가수이자 Saigon Overseas Radio 진행자인 쿠인 후웅.

“난 이곳 성대한 개업식에 와 보고 정말 놀랄만하다고 느꼈다. 스승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일이다.” — 텔레비전 프로 ‘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 시청자 에릭 델가도리오 목사.

“오늘 이 서점의 탄생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뀔 것이다. 시나 음악을 들을 때면 우린 뭔가를 발견하게 된다. 시구들 속에는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 깨우는 글들이 있다.” — 라디오 프로 ‘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 청취자 추 칸.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예술품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시와 음악의 전당’이 문을 열다.

KSCI 채널18의 PD 에바 맥커윈 여사(오른쪽)와 그의 동료가 다른 많은 귀빈들과 더불어 성대한 개업식에 참석하다.



전설적인 작곡가 팜 두이(오른쪽)와 <Van Hoa> 잡지사 사장 리 키엔 트룩(왼쪽)



‘시와 음악의 전당’의 성대한 개업식을 취재하는 KSCI 뉴스프로 취재진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 깨달음의 경지로 함께 오르자

칭하이 무상사/ 1989년 7월 8일 홍콩 (원문 영어)

**질문:**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스승:** 오직 깨달은 스승을 찾았을 때에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파가 아닙니다. 모든 종파가 다 좋으나, 사실 살아 있는 스승을 찾는 것이 제일입니다. (박수) 고대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를 따랐을까요? 그건 그가 깨달은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 수행하는데는 자신의 종교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하느님(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을 수 있고, 불교인들 역시 최상의 부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부처 역시 신입니다. 최고의 신은 곧 최고의 부처이죠.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면에 있는 최고의 힘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0년 12월 16일 코스타리카 (원문 영어)

만약 모든 사람이 진실로 성경과 불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한다면 다른 사람과 다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더불어 기뻐하며 같은 교회 안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교황이 절에 가고 스님들이 교회에 갈 것이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입니다. 신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이해의 종교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사원이나 교회도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깨달음의 사원입니다. 그 사원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세계의 모든 종교를 알게 될 것입니다.



## 밀교(密敎)와 대중교

칭하이 무상사  
1989년 7월 8일 홍콩 (원문 중국어)

**질문:** 수행에 있어, 밀교(密敎)와 대중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스승:** 영적 수행은 ‘밀교’적인 측면과 ‘대중교’적인 측면이 모두 갖춰져야 완벽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밀교적인 수행을 하지 않죠. 그 법문을 전수해 줄 살아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 계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수행법은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도덕 기준을 바꾸지 않아도 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따금 돼지를 도살하지만 절에 가서 불상에다 절하고 보시를 하는 사람들을 이런 대중교 수행자라 할 수 있죠. 이와는 달리 진지하게 밀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상한 도덕 개념을 지녀야 하고 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선대(先代)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런 수행법을 많이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세속의 언어를 초월해 있는 이 비밀스런 법문을 얻은, 깨달은 스승을 찾는 일입니다. 무형의 가르침을 주는 학교를 졸업해서 ‘설명되지거나 이름지어질 수 없는’ 이 진실된 법문을 획득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그 법문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교 수행자들은 졸업하기 전에 여러 경전을 공부하고 많은 불교용어를 배웁니다. 그들은 부처와 대승(大乘), 마하반야바라밀다(무상정등정각, 無上正等正覺)가 의미하는 바 등을 알아야만 하죠. 그래야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고 대중교리를 설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밀교 수행이 더 어렵습니

다. 공부해야 할 경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세생생의 수행,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신실함, 계율과 부지런한 정진에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스승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죠. 그러므로 밀교를 졸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밀교와 대중교 양자를 모두 성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고, 베다(인도의 고대경전)를 포함한 모든 경전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문교인이나 혹은 그 누구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경전에 관해 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글이나 말을 통해선 전해 질 수 없는 밀교의 가르침도 이뤘습니다. 무형의 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이들에게 그 법을 전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길의 차이점이라면, 대중교의 길에서 졸업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많아도 밀교의 길에서 성도(成道)를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불교 단체에서 몇 년 간 공부를 한 세인(世人)들도 역시 대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조차 설법을 할 수 있고, 마하반야바라밀다(무상정등정각, 無上正等正覺)의 정의와 대비주(大悲呪), 아미타불의 기원과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을 외워야 하는 이유 등을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지요.

반면에 밀교를 가르치는 학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지할 만한 경전도 없습니다. 이 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기댈 곳이라곤 자신의 신성과 지혜뿐입니다. 또 그것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매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이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니주’라 불리는 우리 자신의 무형의 자산, 참된 무형의 경전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만 소리 없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조차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법을 터득해 가며 온 마음을 다 바쳐 노력해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88년 3월 6일 포포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질문:** 불경에는 8만 4천가지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보면, 모든 법문은 자비롭고 동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생들에게 관음법문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입니까?

**스승:** 더 적절한 것만이 아닙니다. 원래 중생은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좀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 또한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론가 가서 8만 4천 법문을 다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 이 궁극적인 법문에 이르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린 집착을 끊으려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스승을 만났을 때조차 수행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혜를 얻어 성불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회, 가장 소중하고도 유일한 기회가 바로 대지혜를 얻고 중생들을 얻어내는 8만 4천가지 법문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 인간으로서 무얼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지요. 아마 지금은 내 말을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8만 4천 법문은 모두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삼계내에 묶어둘 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복보와 능력, 초능력들을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론 우리를 삼계 내에 묶어둡니다. 관음법문이야말로 삼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법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관해 거의 듣은 적이 없는 겁니다. ☆

## 호흡수련은 궁극적인 법문이 아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1년 2월 24일 미국 하버드 대학 (원문 영어)

호흡과 심장박동을 멈추게 하는 명상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내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잠시 기다려봐요. 죽으면 그렇게 될 테니까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정말 쓸모 없는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체온을 상승시켜 열을 통해 삼매의 불꽃, 삼매의 힘을 주는 명상법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븐 속으로 뛰어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다 엉터리입니다! 깨달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히말라야에 있는 스승들이나 수행자들은 열이 부족해서 추운 계절에 자신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투모’ 열이라는 걸 수련합니다. 태양총에서 열을 끌어올려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는 히터와 중앙난방장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으니 그런 걸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의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와서 자신은 물위를 걸어서 강 건너편에 이를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 얼마 동안 수행을 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25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가 말하길, “왜 시간과 돈을 그렇게 낭비했습니까? 5센트만 내면 보트로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 수행합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은 우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이 우주를 향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사윤회의 감옥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죠. 열기나 냉

기를 증가시킬 필요도 없고 심장박동이나 숨을 멈추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건 모두 덧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저 자연적인 작용과 기능일 뿐이지요. 여기에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성은 호흡에 있지 않습니다. 심장박동이나 복부 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성은 물론 그것들 모두 안에 스며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신성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다 전체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수준을 넓히고 우리의 수준, 최소한 지적인 수준이라도 높이기 위해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관념이나 무용한 편견에 집착한다면 더 이상 지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발전될 희망이 없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  
1991년 1월 28일 파나마 (원문 영어)

‘프라나야마(Pranayama-호흡수련법)’를 수행하면 여러 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해져서 좀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약간의神通력을 얻거나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나야마’ 만으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숨이 끊어져도 삶은 계속 되니까요. 이른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신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은 육신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서 호흡수련을 하십시오. 호흡은 신체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만 그렇죠. 많은 이들이 호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가난다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까? 삼매에 들었을 때 그의 스승은 호흡조차 하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은 그가 삼매에 들어 호흡을 멈추었을 때 그에게 지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의 지혜는 어디로 갔을까요? ‘프라나야마’를 수행할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지혜를 얻었을까요?

‘프라나야마’는 아니지만 호흡을 세는 다른 호흡수행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호흡과 관련되

어 있고, 집중의 한 형태로 호흡을 사용하는 수행법들이 많이 있죠. 집중에 관한 거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나라면 누구에게도 그 방법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덧없는 호흡에 의지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의 힘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때나, 정신이 아찔할 때, 죽을 때, 병을 앓거나 잠들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호흡을 의식하지 못할 때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단순히 깨어있을 때나 호흡을 의식할 수 있을 때만 수행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내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건 오로지 영혼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이 호흡법을 수행해서 이 호흡법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즉 호흡을 멈추고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누군가 이처럼 숨을 멈출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다고 그를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멈출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호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흡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진실로 말하건대, 사실 호흡은 감동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됩니다. 우리 신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력 혹은 호연지기(浩然之氣)라고 하는 ‘샤브드(shabd)’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력 혹은 활기(活氣)라고 하는 ‘모토르(motor)’의 흐름입니다. ‘샤브드’는 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숨을 쉬건 쉬지 않건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간에 만물(萬物)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샤브드’가 바로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인 ‘모토르’는 열기와 냉기,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호흡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절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늘이거나 줄이든지 멈추게 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지고의 지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서 이 기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면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손을 보거나 돌봐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걸 굳이 건드리거나 엉뚱한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함께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

## 구세주는 왔다!

칭하이 무상사  
1991년 5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질문:** 구약과 유대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구세주를 기다리진 마세요. 구세주는 언제나 오니까요. 대신에 현존하는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오기를 기대한다면 구세주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당시 사람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한 행동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한 게 잘못이죠. 예수는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떠난 후에 다른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라면 예수와 동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세주들이 오고 갔는데,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나타날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다린다면 구세주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날개와 수염을 달고 나타나거나 십자가를 지고 나타날까요? 만약 그가 다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거기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2천년 전의 일을 누가 그리 험히 기억하니까? (웃음)

예수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으로서 옵니다. 그는, 지각력이 있어 자신을 맞이하는 올바른 문을 열어놓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혹은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는 늘 다시 옵니다. 언제든 우리가 준비되는 그 순간에 옵니다. 그는 자신을, 자신의 전능한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승을 통해 옵니다. 그 역시 예수입니다. 아마도 다른 머리모양을 했겠지요. 어쩌면 하이힐을 신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입니다. (웃음과 갈채) ☆

칭하이 무상사  
1993년 3월 17일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질문:** 우주 최고의 구세주이며 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을 믿으십니까?

**스승:** 예, 사실입니다. 모든 스승들이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예수’는 그의 육신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칭호입니다. 모든 스승에게 다 이 그리스도의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남겨져 있는 무지한 우리들이 모두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스승들을 통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갔다면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가 높은 영계(靈界)에 있다면 그와 접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어느 특정 시대에 출현하기로 안배되었거나 운명지워진, 그런 육신의 스승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자라고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어느 스승이든 살아 있는 동안은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성경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불교인들



도 마찬가지죠. 성경이나 불경들은 과거 스승들에 대한 훌륭한 증거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지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나도 잘 압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날이 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릴 뿐입니다. 성경은 이 지상에 내려온 한 위대한 스승의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가 오기 전이나 예수가 떠난 이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예수 다음에 온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 그의 이름을 듣고 구원될 테니까”라고 하면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왔던 사람들은 어떨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신이 오로지 단 한 사람의 구원자만, 그것도 단 한번만 보낼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할까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가 우리를 전부 구원했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무지한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천국에 가지도 못하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아주 깊고 신실한 기도를 했을 때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 가르침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를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내 제자들은 예수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지로 올라가 그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나 신을 보고자 하면 예수나 신을 보게 해주고, 또 부처를 만나고 싶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과거 스승들에 관한 기록에 집착하는 대신 내 말을 믿어야 합니다. ☆



## 이슬람 교리 안에 담겨있는 진리

칭하이 무상사

1989년 3월 6일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난 우연히 코란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지상에서 좋은 손님이 되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 이슬람 코란에 있는 이 문장을 읽고 나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의 무상함을 불교에서만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란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그런데도 여전히 어느 종교가 더 나은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여야 할까요? 이 한 문장만 읽어봐도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짧지만 그야말로 완벽하죠! 여기 있는 동안 자유롭게 풍요롭고 뜻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란 역시 소리(音)에 관해 언급합니다. 스승인 마호메트와 그의 제자들 역시 그에 관한 말을 했죠. 그들은 플루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지혜가 열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행복했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세계의 플루트 소리를 언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관음 수행자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소리를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반면에 어떤 이가 비록 이슬람교도라 하더라도 내면의 플루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코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가 말하길, “너희는 바람소리를 들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바로 여래(如來-무소부재한 존재)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여래의 소리를 들을 때 여래의 일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래의 또다른 부분은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 역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불광(佛光) 역시 무소부재합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래(如來)를 본다는 것이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석가모니불 자신이 본인을 ‘여래’라고 부른 건 사실이지만, 그는 또 자신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여래란 내면의 체험이고 무소부재한 품성입니다. 이 여래의 품성을 볼 때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업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전 우주의 체계를 훤히 알며 창조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우주와 하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것처럼 노자의 경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를 진실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체험을 함으로써 ‘만물동일체(萬物同一體)’라는 그의 말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칭하이 무상사  
1993년 3월 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원문 영어)

**질문:** 이슬람교도는 채식을 한다해도 종교적인 관례에 따라 매년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것은 괜찮은지요?

**스승:** 공양 말이군요. 하지만 공양을 올린다는 게 희생양을 바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혹 뜻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이들은 스승이 한 말을 그릇되게 이해합니다. 어떤 스승도 피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어떤 스승이 중생의 피를 받고자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납득되는 말인가요? 스승이 아닌 보통의 여러분들조차 그런 걸 바라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도살한 것을 먹을 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 닭이나 염소를 죽여달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물며 어떻게 스승이 제자에게 그런 피비린내 나는 행위를 하라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스승들은 하나같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스승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바가바드기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어라. 나만을 기억하고 나만을 사랑하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섬

기지 말고 오로지 나만을 섬겨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달라. 너의 삶, 너의 가족, 너의 재산, 그 모든 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만 크리스나가 아르주나에게 단 일전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돈이 필요했던 필요치 않았건 말입니다. 전혀 없었지요. 결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겁니다. “내게 너의 소와 자동차, 염소, 황금, 아내, 자녀들을 맡겨라. 내게 모든 것을 주어라.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건드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복종, 믿음과 신념, 그리고 무아의 표시로 영적인 의미에서 제자가 스승의 발아래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승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의 뜻이 왜곡되었습니다. 첫번째 양을 첫번째 희생양으로 바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이런 피묻은 희생양을 원하겠습니까? 스승이 아니고 보통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염소를 죽여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서 고기를 사니까 가축을 도살하는 참담하고 고통스런 장면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살당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초콜릿 한 조각을 사듯이 무감각하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승은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지니고 있는데, 어찌 이런 피흘리는 희생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

칭하이 무상사  
1993년 4월 25일 프랑스 파리 (원문 불어와 영어)

**질문:** 이 질문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성경과 코란의 내용에 대해 자주 의심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나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또 코란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인가요?

스승: 난 여러분에게 오계를 지키라고 합니다. 살생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채식을 하고, 흠치지 말고, 도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생활을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단지 오계를 따르며 하루에 두 시간 반씩 명상하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분이 읽는 책들에 관해선 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이슬람교인이었다면 물론 나는 그의 생활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알기 전부터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이미 열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그 아내들과 헤어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려 온 것이죠. 이슬람교인들이 어떻든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도 더는 싸우거나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전쟁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 단체에는 들어올 수 없죠.

전쟁을 하는 건 이슬람교도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 그 밖에 다른 교인들도 다 합니다. 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신자들은 싸웁니다. 그리스도 역시 전쟁을 일으키려 왔다고 하진 않았습니 다. 그는 자신이 평화를 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항하게 하겠다는 식의 말을 했지요. 그건 바로 업장의 사슬을 단칼에 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지혜의 검이 혈연으로 얽힌 모든 사슬과 집착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설사 아버지가 고기를 먹는다 해도 아들은 채식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 다. 한 예로 입문 전에는 가족들이 서로 집착하고 극히 제한적인 사랑으로 서로 구속했어도 입문 후에는 다른 형제자매들인 입문자들을 사랑하듯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의미한 바였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단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고기를 먹도록 강요해도 자녀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부모

에게 대항하는’ 행위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번도 전쟁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시저에게 속한 것은 시저에게 주라”고 말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못박으려 했을 때도 그는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그를 지지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섬기고자 했으나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 왕국은 지상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토록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전쟁이란 영적인 의미의 전쟁입니다. 마야의 환상과 술수, 함정, 권세, 그리고 우리를 계속 얽어매는 암흑의 왕에 맞서 싸워야 함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 것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보통 나는 지적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새 입문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적인 씨름을 하거나 논쟁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자, 코란에 의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신을 방어하는 걸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자 마호메트와 그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있는 스승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부처를 비방하며 독살하려 했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역시 오해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걸 시간을 내서 잘 배우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저 한 두 문장만을 고릅니다. 아마 잘못 인쇄되었거나 그릇되게 해석된 문장일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선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니 그리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마호메트가 살았을 당시에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미행 당하고 처형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전쟁을 치른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여러 아내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편들이 죽었

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의 과부들과 아이들이 남겨졌으니 예언자나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을 거두고 약자나 고아들을 돌봐 주어라. 마치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라.”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것이 꼭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 예로 우리 입문자 중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아이들이 남겨지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그들을 다른 입문자의 집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육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기 자녀인 것처럼, 형제자매인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호메트가 말한 바도 이렇습니다. “네가 여러 명의 아내들을 집으로 데려간 후에는 그들을 동등하게 보살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여러 명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에게 보석을 하나 선물할 때 다른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거두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와도 비슷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를 한 명 입양하려고 하면 정부는 여러분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은행구좌에 돈이 충분히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신고하게 하죠. 비록 이 같은 사

회보장제도는 없었지만 그 당시도 나름대로는 꽤 문명화되어 있었던 셈이죠. 이것이 이슬람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경전을 공부할 땐 의심이 완전히 가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한 두 문장만을 골라 읽고서, “별로 좋지 않은데, 역시 이슬람교는 좋은 게 못돼”라고 한다면 편견을 갖는 겁니다. ☆

칭하이 무상사

1993년 4월 24일 프랑스 파리 (원문 불어)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슬람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있습니까?**

**스승:** 그렇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슬람교는 사람들에게 지상에 있을 때 좋은 손님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살아 있는 동안 천국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나 역시 같은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오계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오계를 통해 우리는 지상에서 고귀한 품성과 지혜, 평화를 지닐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즉각적으로 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법문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은 다른 모든 훌륭한 종교들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



## 한가로운 시간에 누리는 즐거움

성 리홍 사저/ 싱가포르

저멀리선 땃잎들이 유쾌하게 살랑거리고  
가까이선 성급한 물결들이 요란하게 흐르는데  
나는 창가에 앉은 새들에게 물어본다  
이 오묘한 마음의 노래를 알 수 있냐고



## 빛과 소리 요법

로 시형 사형/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와 영어)

알다시피 관음법문은 두 부분, 즉 빛에 대한 명상과 소리에 대한 명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애로운 스승님의 가르침과 동수들의 무수한 개별 체험을 통해 우리는 모두 내면의 빛과 소리가 영적인 계발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의학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고 있는 빛과 소리 요법은 우리가 매일 내면으로 관하는 내적인 빛과 소리는 물론, 외적이고 물리적인 빛과 소리마저도 질병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내면의 빛과 소리가 주는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긍정 효과들은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 입증되었다. 앞으로는 현대 의학의 발달로 “관음(觀音)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고 영적 수행이 최상의 과학이라는 점이 서서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암 치료에서의 밝은 광선 요법

미국에서는 암 환자가 매년 백만 명씩 늘고 있다. 미국 인구의 약 25%가 사는 동안 암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술 또는 국부 방사선 치료로 치유되는 수는 환자의 1/4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병을 앓는 동안 전신 화학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약물요법은 병의 악화를 가져올 뿐이고 합병증 유발 혹은 재발로 결국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1). 따라서 더 나은 암 치료법의 발견이 늘 의학계의 하나의 과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비약물 치료법인 광역학 요법이 악성 불치병을 다루는데 이용되고 있는데, 그 한 예가 암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2). 광역학 요법은 감광적 약물(silicon- pathalocyanine, Pc4)과 강한 가시광선(可視

光線)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은 감광성 Pc4를 암 세포에 장착하고 그런 다음 Pc4를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NO와 세포 속에 있는 OH, O2 같은 산화성 물질의 생산이 증가된다. 이 물질들은 세포의 분열이나 종식을 야기한다 (2). 이 방법은 암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게다가 임상 적용도 가능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 월경 전(前) 신체위화증 치료에 이용되는 밝은 광선 요법

여성 호르몬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이다. 인체 내에서의 이들 호르몬의 변화는 여성의 제 2차 성징(性徵) 발달과 임신과 배란—월경 주기의 조절, 그 외의 여러 신진대사 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3). 호르몬에 이상이 있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월경 전(前) 신체위화증(PMDD)으로 육체적 불쾌감은 물론이고 우울증, 긴장에서 오는 불쾌감, 불안 같은 심각한 감정 장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이에 관한 치료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제 복용과 전통적인 심리요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약물치료는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삼가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한 의학적 연구에서 밝은 광선 요법이 월경 전 증후군을 물리치고 이 같은 질환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밝은 광선 요법을 일 주일 동안 실시한(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시간씩 6천 렉스의 광선을 쏘임) PMDD 환자는 여러 면에서 현저하게 호전되었다 (4; 5; 6).

## 알코올 금단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밝은 광선 요법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65%에서 70%가 술을 마신다고 한다. 그 가운데 1억 이상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또 다른 1억은 과도한 음주로 구류, 교통사고, 폭력, 산업재해, 직무와 신체건강에 해로운 영향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사회에 초래하고 있다.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또 의료체계를 과용하기 마련이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의료기관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는 주요한 공중보건문제로 대두되었다 (7). 게다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술을 마시고 나면 끊기가 어려워지는데, 그것은 금주(禁酒)로 인해 불안, 불면증, 경련, 흥분, 식욕부진, 혼란, 활동항진증과 같은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간에는 이들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의 한 임상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밝은 광선 요법이 금주(禁酒) 적응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이 연구는 진정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열 명의 환자들에게 밝은 광선을(빛의 강도: 3천 렉스, 노출 시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시간씩) 투사함으로써 밝은 광선 요법이 심각한 알코올 금단증 환자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8).

##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밝은 광선 요법

파킨슨병은 장년 층에서 네 번째로 흔한 신경학적 질병으로 미국에서만 5만 명이 이 병에 걸려있다. 이 질병은 나이와 연관있는데, 환자의 66% 이상이 50세 이상이다 (9). 파킨슨병은 근육 운동의 진행성 신경학적 장애로 경련,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 운동완서(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완만한 것)로 특징 지워진다 (10). 파킨슨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경련이 쉬는 동안에 발생하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종종 감소된다는 것이

다. 또 이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자세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임상에서는 파킨슨병에 대개 ‘L-도파’라는 약물치료를 하는데 ‘L-도파’ 치료의 주요 한계는 3년 내지 5년 동안만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자들은 온오프(on/off) 현상을 보인다(즉 약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게다가 장기간의 약물사용은 점진적인 신경학적 퇴화를 유발한다 (9; 10).

최근 파킨슨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광선 요법이 행해졌다. 인공 백색 광선(강도: 3천3백 렉스)을 쬬며 ‘투약 휴일’ (약물 미사용 기간)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갖는 방식의 치료다. 이 연구를 통해 밝은 광선 요법이 ‘투약 휴일’을 견디는 환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요법을 사용하면 경직과 운동완서(경련은 없으나 동작이 극도로 느림)의 증상이 완화되고 우울증이 감소되며 운동전달기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1).

이 외에도 빛을 이용하는 치료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극심하거나 약간 심한 습진, 종양, 피부염, 영아 황달에 사용하는 가시광선(可視光線) 요법; 살균, 소독에 사용하는 자외선(紫外線) 요법; 수술, 열 요법, 광자 압력 요법; 침술에 이용하는 레이저(laser) 요법;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광화학(光化學) 요법; 기타 (12).

## ‘소리’와 관련된 요법들

초음파 요법은 2만 헤르츠 이상의 초음파를 사용하는 요법으로 ‘미세한 마사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세포 내의 미립자 운동을 가속화시키고 조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또 조직 사이의 접촉면에 가열 효과를 주어 흡수 작용을 촉진시킨다. 이 요법은 그간 신경계와 건초 및 유선(乳腺)의 염증, 근육 긴장, 흉터, 경피증(癬癩), 졸증의 후유증, 망막 및 시신경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다른 요법에서는 초음파와 전류를 결합시켜 각종 조직 염증과 신경통을 치료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12).

물리적 빛과 소리를 이용하는 이러한 요법들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내면의 빛과 소리에 관한 명상이 영적 진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포기능을 강화하고 병든 세포를 제거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퇴화를 방지하고 신경 질환을 치료하며 지압점을 자극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구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이 향상되고 우울증과 불안이 치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빛과 소리의 치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내면의 빛과 소리를 명상하는 것은 마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치유하고 살찌우는 요법, 즉 우주 '최고의 명약'으로 치료받는 것과 같다. 스승님은 매일 두 시간 반씩 명상하되 관광(觀光)과 관음(觀音)의 비율을 적정비율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셨다. 이는 의사의 처방전과 같다. 그러니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의사의 처방대로 열심히 '투약'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Harvey RA, & Champe RC. (1998). Lippincott's Illustrated reviews pharmacology. 2nd ed. J.B. Lippincott Company. Chapter 38:373.
2. Gupta S., Ahmad N. & Mukhtar H. (1998). Involvement of nitric oxide during phthalocyanine (Pc4) photodynamic therapy-mediated apoptosis. Cancer Research. 58:1785-8.
3. Brody TM., Larner J. & Minneman KP. (1998). Human Pharmacology. 3rd edition, Chapter 38:p499-506.
4. Parry BL., Berga SL., Mostofi N., Klauber MT. &

- Resnick A. (1997). Plasma melatonin circadian rhythms during the menstrual cycle and after light therapy in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and normal control subjects. Journal of Biological Rhythms. 12:47-64.
5. Lenzinger E. Diamant K. Vytiska-Binstorfer E. & Kasper S. (1997).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An overview of diagnosis, epidemiology and therapeutic approaches. Nervenartz. 68: 708-18.
6. Parry BL., Udell C., Elliott JA., Berga SL. Klauber MR., Mostofi N., LeVeau B. & Gillin JC. (1997). Blunted phase-shift responses to morning bright light in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Journal of Biological Rhythms. 12:443-56.
7. Brody TM., Larner J. & Minneman KP. (1998). Human Pharmacology. 3 edition. Chapter 23:p435-437.
8. Schmitz M., Frey R., Pichler P., Ropke H., Anderer P., Saletu B. & Rudas S. (1997). Sleep quality during alcohol withdrawal with bright light therapy.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 Biological Psychiatry. 21:965-77.
9. Harvey RA, & Champe RC. (1998). Lippincott's Illustrated reviews pharmacology. 2nd ed. J.B. Lippincott Company. Chapter 29:385-7.
10. Brody TM., Larner J. & Minneman KP. (1998). Human Pharmacology. 3rd edition. Mosby Ltd. Chapter 25:p339-40.
11. Artemenko AR. & Levin Ial. (1996). The phototherapy of parkinsonism patients. Zhurnal Nevropathologii I Psikhiatrii Imeni S-S-Korsakova. 96:63-6.
12. [http://www.jiexiang.com.cn/index5\\_2.htm](http://www.jiexiang.com.cn/index5_2.htm)



## 칭하이 무상사 최신 오디오 테이프

E73 (테이프 6개)

〈영어+핀란드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 (1) & (2)

1999년 5월 30일 핀란드 헬싱키 강연

〈영어+스웨덴어〉

어린이의 순진함으로 돌아가자 (1) & (2)

1999년 5월 31일 스웨덴 스톡홀름 강연

〈영어+노르웨이어〉

신과 하나된 삶 (1) & (2)

1999년 6월 2일 노르웨이 오슬로 강연

## 교회, 모스크, 사원, 피라미드의 참뜻



칭하이 무상사/ 1993년 3월 9일 싱가포르 (원문 영어)

교회, 즉 외형적인 교회, 모스크, 사원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사원과 예수가 했던 말, “너희는 신의 사원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모르느냐”는 말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에 교회와 사원은 신을 향한 숭고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나 모스크, 혹은 다른 어떤 종교의 사원이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이런 숭배의 상징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원, 모스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벽돌로 쌓은 사원에서만이 아니라 참된 신의 사원에서, 다시 말해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사원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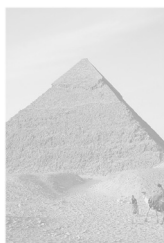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1994년 12월 7일 태국 (원문 영어)

버스 안에서든 공원에서든 거실에서든 어디서든 그저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주 단체명상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체명상 날짜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번,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그리 넓지 않으면 좀더 넓은 장소를 물색하면 됩니다. 그러니 굳이 나를 위해 사원을 지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창고 같은 것을 쓰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원, 모스크, 교회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겠지요. 바로 단체명상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3년 6월 4일 말레이시아 (원문 중국어)

불교 사원은 원래 입문한 수행자들의 단체명상 장소였습니다. 우리 명상센터처럼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입문한 뒤에 일주일 혹은 이 주일에 한 번 꼴로 모여 함께 명상을 했던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질문도 했지요. 그러면 스승은 제자들을 보내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좀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했습니다. 단체명상은 축복의 힘이 매우 강하므로 단체명상에 참석하는 사람은 빨리 진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사원은 본래 이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5년 6월 4일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피라미드는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요. 나는 그것들이 영적 수행을 위해 지어졌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고대에는 ‘지혜 안내서’를 얻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단체명상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 호법들이 사방을



에워싸도 쉽게 남들 눈에 띄는 것입니다

…… 아무 것도 없는 사막에 앉아 있으면 낮에는 찌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을 겁니다.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극도로 덥고 밤에는 극도로 춥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피라미드는 내부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입구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죠. 내부는 아주 널찍했지만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것도 없었겠죠.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명상하고 입문식 등을 하려고 지은 것이니까요.

…… 참된 수행처는 명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없거나 기껏해야 불상이나 사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불상을 세웠지만 아마도 지금은 사진이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겠죠.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앉는 곳이었기에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



이야기 세상

## 단체명상의 이로움

라쉬다 하리스 사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원문 영어)

수행에 있어서 나의 최대 분투는 단체명상에 가는 것이었다. 단체명상에 가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 참석을 못한 이후로 나는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명상 중에 스승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이런 마음을 극복하게 해 달라고 말이다.

명상을 많이 한 후에도 결단력과 확신이 부족한 나는 결국 스승님을 직접 뵈러 가기로 결심했다. 스승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영국 선 행사에 참가시켜 주셨다. (나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겪은 뒤 간신히 선(禪)에 갈 수 있었다.) 그때는 내가 왜 선 행사에 가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알고 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스승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고질라에게 잡아먹히려다 구출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안전한 느낌, 정화된 느낌, 행복한 느낌이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단체명상에 가겠다고 스승님께 약속했다. 스승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도 우렁차고 분명하며 사랑으로 가득해서 빠져나갈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

내게 일었던 저항감은 내가 배워야 할 내면의 교훈이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스승님의 숭고한 사랑 덕분에 나는 이 교훈을 멋지게 배웠다. 그래서 이제 단체명상에 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100마일을 운전해야 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나는 단체명상에 참가하려는 나의 노력 그 자체에서 생겨난 축복의 힘만으로도 노력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속에 자갈처럼 자리했던 저항감이 치워졌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라 바뀌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승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스승님께서 우리 수행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건 말씀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축복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조차도 사실은 축복인 것이다. 우리가 수행에서 진보할수록 축복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라는 사실은 정말 굉장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단체명상에 가는 건 우리 자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수행자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갈등을 경험했는지 모르겠다.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찬 격려가 되어 그들 스스로 그런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 ☆

## 믿을 수 있어요!!

베슬 반 리우벤 사형/ 남아공화국 케이프 타운 (원문 영어)

나와 내 아내는 최근 남아공화국 헤르마누스에 갔다왔는데, 그때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유기농법 공동체인 캠프힐 빌리지에 살고 있는 아들을 방문했다. 1999년 12월 하보님 캠프장 근처에서 열렸던 케이프타운 국제전에 참가했었던 사람은 아마 지금도 캠프힐에서 공급했던 빵 맛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캠프힐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 몇몇 사실들을 아래에 적었다. 그것들은 그리 놀랄 만한 것들은 못된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이 늘 가르치시는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른 아침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캠프힐의 책임자는 어디 가고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장남인 마크(18세)가 있었다. 그에게 하보님을 찾는 다른 방문객들도 있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예, 하지만 같은 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그의 모친은 국제전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조용하고 예의바르게 처신하며 평화의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전부 합해서 백 명도 안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밤이든 낮이든 고함소리라든지 시끄러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크가 집으로

돌아온 날은 선 행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는 선행사가 남기고 간 것을 보고 너무도 놀랐다! 캠프장이 티끌 하나 없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뭐라 설명할까요, 전반적인 분위기랄까요? 긍정적인 에너지, 평화로운 느낌, 고요하고 안정된…… 뭐 그런 거라고 해두지요. 어떻게 묘사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좋았어요. 불행히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략 6주 동안 우리는 매우 행복하고 평온하고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개들마저도 말을 더 잘 듣고 암전하게 굴었죠. 우리는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마음 폭 놓고 잤어요. 그 6주 동안 어머니는 닭고기나 다른 육류를 전혀 드시지 않았고, 담배도 평소보다 훨씬(1/3 이하) 적게 피우셨죠. 지금도 여전히 전보다는 담배를 적게 피우시고, 가끔 닭고기를 한 조각 드시는 정도예요. 우리 모두 스승님의 책을 읽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럴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스승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수행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



지혜어록

## 전 행성을 위한 단체명상

칭하이 무상사/ 1993년 11월 6일 미국 라구나 비치 (원문 영어)

모든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지구를 정화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명상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혹은 5대 조상의 천도나 미국 한 나라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행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일수록 효과는 더욱 커지죠. ☆

# 관음법문이

# 나를

# 변화시키다

양 광 사형 / 중국 본토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온 힘을 다했다. 내 자신을 선전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갖은 기회를 노렸다. 직장에서나 바깥 세계에서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가문을 명예롭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 매일 머리를 짜내는 일이 삶을 버겁게 만들었다. 게다가 나는 여자에 중독된 상태였다. 젊어서부터 예쁜 여자 쳐다보기를 좋아했고 로맨틱한 환상에 곧잘 젖어들었다. 때로는 이런 상상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지 못했다.

언젠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내게 '칭하이'라는 스승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분이 사람들을 해탈시키고 성인의 경지로 데려가는 최상의 법문을 가르치신다는 거였다. 이 말을 듣고 난 꽤 놀랐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 경전들을 읽고 여러 종류의 기공을 수련해 봤지만, '무상(無上)'의 스승은 고사하고 '무상(無上)'의 법문이라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알팍한 지식으로 부모님과 논쟁했다. 그러나 칭하이 무상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믿지도 않으면서 '즉각 깨닫는 열쇠'를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이 여러 면으로 나를 일깨웠다. 그래서 한번 책을 집어들자 좀처럼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아도 죽은 후에 남는 것은 한 줌의 재밖에 없다는 사실을 난 드디어 깨달았다. 덧없는 인생을 마칠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죽은 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른다. 우리는 평생 동안 부와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려고 기를 쓴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상한, 아니 어찌면 존재하지조차 않는 것을 쫓느라 전 인생을 허비하였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인생의 주된 목표는 영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 신성한 진리의 세계를 체험하고 해탈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으로 나는 깨어났다. 난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관음법문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입문하려면 채식을 해야한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 채식을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부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그러나 이런 내 안의 갈등도 점차 누그러들며 결국 나는 평생 채식을 하며 관음법문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관음법문에 입문한 후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부와 명예를

갈망하던 예전의 그 사람은 간데 없었다. 또 자신을 내세우고 남들 위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도 사라졌다. 여자 중독증도 많이 좋아져서 결혼생활이 크게 안정되었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다소 놀라웠다. 어떤 힘이 있기에 내가 이처럼 완전히 변할 수 있었을까? 내 성격의 변화는 매우 극적이면서 또 아주 자연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능력이고 진정한 신의 사랑이었음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신의 위대한 능력과 통해야만 이런 나약한 인성(人性)과 나쁜 습관을 좋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관음법문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윤회하는 것을 그만두고 최고의 지혜를 얻어 해탈한다는 것이다. 이성(異姓)이든 부(舅)든 명성이든 그 어떤 것도 관음법문이 가져다 주는 지복과 평화와 만족을 대신하진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일생에서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복은 칭하이 무상사를 만나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내 삶은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이 되었다. “산하를 바꿀 순 있어도 사람의 천성은 바꿀 수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정말 천성도 바뀐다. 게다가 깨달음과 생사해탈도 이룰 수 있으니 관음법문은 정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아닐 수 없다. ☆

## 신성한 보호막

구술: 샤오 차오 사저/ 포모사 타이충

편집기록: 천 구웨이주 사저/ 포모사 타이충

올해로 스물 다섯인 샤오 차오 사저는 훈훈한 가족의 정이 뭔지도 모른 채 자랐다. 그가 여섯 살 나던 해 아버지의 혼외정사가 우연히 발각되는 바람에 가정의 평화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빈번히 일어나는 부부싸움으로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형제자매들 끼리도 툭하면 싸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발끈 화를 내실 지 몰라 가족들은 식사할 때마다 불안해 하였다.

유년기 내내 차오 사저는 비탄에 젖은 삶을 살았고 가끔 자살할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위에서 내려와 무력한 그의 영혼을 방패처럼 감싸 안았다. 호기심에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투명하지만 단단한 막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소리의 보호막은 슬픔이 가실 때까지 남아있곤 했다.

그렇지만 가족의 사랑을 잃은 차오 사저는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것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중학교 다닐 때 그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했고 종종 싸움에도 가담했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그의 슬로건이었다.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용기를 내서 온갖 금지된 일들을 시도했고 자신의 행동을 재고(再考)하는 법도 없었다. 그리고 늦은 밤이면 묘지에 가서 담배를 피우며 사색하곤 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행동은 사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절망감의 표출이었다. “두려울 게 뭐 있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원한다면 까짓 이 목숨 가져가라지!” 그리고 수영장에서는 자살의 기분을 맛보려고 가능한 높이 올라가 다이빙하기도 했다.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길 없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스물 한 살 나이에 받은 건강진단서에는 지방간,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고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절망감만 깊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그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도 거기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채식주의자가 되다니, 다들 돈 거 아냐?”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그도 스승님의 ‘외형’만 보고서 서슴없이 무례한 비평을 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관음 수행자들을 만난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근심걱정을 떨쳐낸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기운을 느끼고는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래서 그도



서서히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와 강연 테이프, 뉴스잡지를 통해 스승님의 교리를 공부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도 차츰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의 성격이 밝아지고 온화해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차오 사저는 이렇게 말한다. “스승님처럼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자연스러운 분은 뵈 적이 없어요. 보통 스승들과는 정말 다르시죠. 난,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네 신도들의 운명이나 바꾸려하고,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법이나 주문을 가르치고, 예배당을 숨막힐 듯한 연기로 가득 메우며 갖가지 자기 모순적인 무의미한 의식만 따르려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얼마 안 가서 그는 관음법문에 입문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일생일대의 신비였던 유년시절의 보호막에 관한 해답을 얻었다.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은 바로 ‘음류’였다. 그것은 그가 점점 더 먼 곳으로 떠돌며 방황할 때조차 스승님이 그를 계속 보호해 주셨다는 걸 의미한다! 이제 차오 사저는 매일 영혼을 훈훈하게 해주는 음류를 만끽한다. 이 음류가 불행한 과거의 흔적을 없애주고 그를 평온함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줄곧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고 마음이 늘 무거워서 뇌수술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고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한다. “센터 일을 돕고 명상을 하면서 좀더

민감해졌어요. 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부정적 생각으로 주변 분위기를 오염시켰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일면 곧 지워버려서 다시는 마야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차오 사저는 긍정적인 집중의 필요성 또한 잘 인식하고 있다. “일하는 동안에는 친구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늘 집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난 정말 피곤해. 그러니 쉬어도 괜찮아,’ 라든지 ‘최근에는 잠을 충분히 못 잤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이 두뇌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일을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죠. 그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다른 일에 착수함으로써 ‘마야’의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완성할 때마다 우린 극기(克己)에 대한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성’이 강해지면 다른 시험이 와도 깨끗하게 버틸 수 있죠. ‘난 피곤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겠지’ 혹은 ‘일을 하면 할수록 실수만 쌓이잖아’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기만하려는 ‘마야’를 비웃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마야’가 슬그머니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곧 ‘마야’를 물리치는 거죠. 자신이 속한 센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 진보의 초석이므로 진보를 원한다면 갖고 닦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이 깎이고 닦일수록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입문한 지 채 일년도 못 됐을 때 다시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먼젓번에 발견되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몰라도 본인은 뼈저리게 느꼈던 심한 통증에서도 벗어났다. 채식한 후로는 이따금 눈이 퉁퉁 부어오르던 알레르기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심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곤 했던 잦은 천식 발작도 크게 줄었다. 또 방편법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담배와 알코올 중독증도 서서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유혹이 슬금슬금 밀려들면 견디다 못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담배를 꺼내 물곤 했죠. 그렇지만 한 모금 피자마자 곧 후회했어요. 그런 환각으로 나를 속인 건 ‘마야’였어요.”

입문을 한 후 얼마간 차오 사저는 선 행사에 가기 전날 밤이면 천식 발작으로 시달렸다. 그러면 반쯤 엎드린 채로 오불을 외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그는 스승님이 자신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라는 강한 신념으로 그 시련을 잘 버텼다. 선 행사 때마다 약을 가져가긴 했지만 막상 선이 시작되면 증상이 사라지곤 했다. 몇 번의 정화 과정을 거친 뒤 천식은 나아졌다. 더는 약물치료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관음법문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이제 차오 사저는 불우했던 유년시절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유일무이한 이 해탈법문에 대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

# 기적 같은 신의 손길로 거듭나다

팜티란 사저/ 폴란드 바르샤바 (원문 어울락어)

약 2년 전 나는 인생이라는 터널 끝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삶도 이것으로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난 이 터널로 발을 내딛기 전에 내 운명에 관해 간략히 얘기하고 싶다.

1981년 초 나는 궤양이 심해서 위를 1/3가량 들어내려고 병원에 입원했다. 불행히도 위궤양은 치명적인 상태였다. 나는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는' 심정이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과 심각한 궤양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 난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 이후에도 위궤양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 나는 무수한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다녔고 국내에서 이름 있다는 약방에는 다 가서 약을 써봤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알약들과 수천 가지 한약을 먹어봤지만 효험이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내 가족은 가난과 근심,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92년 말 나는 병세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외로 나갔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은 변했지만 내 운명은 변함이 없었다. 고통 때문에 남편과 나는 무수한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극심한 고통으로 나는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몸부림쳤고, 그러면 남편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그 모든 게 허사였다. 나는 사회에 대한 시민의 도리는 고사하고 자식노릇, 아내노릇, 부모노릇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밤이면 부처님과 하느님을 향해 한량 없는 자비를 베풀시어어서 이 몸을 한 줌의 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남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아무에게도 구제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연인지 하늘의 안배인지 내게 '즉각 깨닫는 열쇠'와 뉴스잡지 한 부가 주어졌다. 그 책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강하게 끄는 것 같았다.

스승님의 책을 읽은 후 나는 위통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스승님의 법호를 불렀다. 그러면 곧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단지 스승님의 법호를 외기만 해도 누군가 상처에다 소금을 문지르고 뱃속의 창자를 끄집어내는 것 같던 극심한 고통이 점차 수그러들었다. 나는 내 안에서 놀랄 만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밤이건 낮이건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는 스승님의 법호를 불렀다. 그러면 고통이 서서히 없어졌다. 온갖 종류의 약을 다 써봤지만 이렇게 효과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이는 100퍼센트 진실이다. 스승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기만 하면 이를 수 없었던 간절한 소망들을 스승님 안에서 이

룰 수 있다는 걸 난 알았다!

유년기 때부터 나는 줄곧 삶의 모든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주며 나를 이끌어 줄, 완벽한 덕과 아름다움을 지닌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스승은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조연자를 찾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소망을 이뤘다. 이 작고 가련한 영혼이 궁극적인 지향점을 발견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스승의 무한한 자비는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준다. 파도가 대양을 만난 것처럼, 오랜 세월을 길 잃고 헤매던 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처럼 이제 나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젖는다. 내가 겪은 이 모든 변화와 기쁨을 짧은 시에 담아보았다.

**내 영혼은 황폐한 땅 전역을 돌아다녔네.**

**비가 멈추니 천 년이 가뭄인 듯했네.**

**그런데 돌연히 천둥과 비를 몰고 오신 당신,**

**촉촉이 젖은 내 영혼의 씨앗이 돌 사이로 뿌리를 내리네.**

스승님의 책과 테이프를 통해 매일 조금씩 소생하며 나는 진정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맛봤다. 돌이켜보면 지난날은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느라 눈물마저 말라버린 세월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무지 때문이란 걸 안다. 스승님 덕분에 나는 고통의 근원과 그것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았다. 지금까지 스승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내 영혼에 꼭 들어맞는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승님은 대부분의 사고, 질병, 전쟁, 재난이 살생에 의한 원한의 기운으로 생기는 거라고 하셨다. 어느 강연 비디오에서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각성시키셨다. “한 사람의 국수 안에 든 몇 점의 고기를 두부로 대체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중생의 삶과 뼈를 얻기 위해 그들을 피 흘리게 해놓고 자신의 피로 그것을 갚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건 원치 않으면서 왜 다른 중생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듣자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고, 내가 사랑스런 동물들에게 죄를 많이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행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채식주의가 되리라 결심하고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채식을 한 후로 나는 점차 고양되었고 슬픔도 조금씩 극복해나갔다. 그때는 아직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채식만 했는데도 소리 없는 스승님의 보살핌을 받았다. 스승님은 여러 차례 내 꿈에(내 딸의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가르치고 위로하셨다. 언젠가 한번은 내 침대 곁으

로 오셔서 내게 보여주려고 연못 안에서 갓 피어나는 연꽃들을 그리기도 하셨다. 스승님 옆에서 그림을 감상하던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대단히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하신 스승님의 다양한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 스승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아주시며 내게 가장 다정하고 달콤한 사랑을 주셨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를 이생에 묶어 두었던 사슬이 끊어진 듯 했고, 내 어깨에서 천근의 짐이 내려진 듯 했다. 스승님은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 양면에서 형이상학적이고 형이하학적인 방법 모두 사용해서 우리 가족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셨다.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이 있다. 나는 일상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스승님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를 위한 놀라운 안배가 있다는 걸 느낀다. 이것은 오직 나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뿐 글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외적 체험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적 체험은 말로 옮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동수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한번은 삼매에 든 상태에서 움직이는 작은 별 수천 개가 지혜 안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별들이 스크린이나 망의 표면에 있는 듯 싶더니 무한정으로 뻗어 가는 꼬리를 단 칼때기 모양으로 변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별 무리였다. 나는 최상의 편안함을 느끼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날고 있었다.

주로 새벽 명상을 마친 후 꾸는 꿈속에서 나는 스승님의 인도를 받아 별과 달이 있는 하늘을 날곤 했다. 내 밑에 푸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편안하고 즐거웠다.

언젠가 한번은 무형의 중생들이 내게 다가와 나를 방해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하는 악몽을 꾸었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나는 불안에 떨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어나 명상을 했다. 명상을 한 후에 피곤해서 선잠이 들었는데, 그때 스승님이 다시 내게 오셔서 이번에는 큰 나무들이 있는 장소로 나를 데려가셨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스승님은 나를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나를 위해 위대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 나 또한 스승님을 안은 채 울음을 터트렸다. 스승님께 안겨 있는 동안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말로 이렇게 외쳤다. “스승님,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스승님에게서 발산되는 싱그러운 향기를 맡았다.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기막힌 향기였다. 스승님을 쳐다보려고 눈을 크게 떴지만 스승님은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다. 나는 어리벙벙한 채 꿈에서 깨었다. 깨어보니 내가 스승님을 포옹했을 때의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스승님의 향기가 여전히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스승님 곁에 있었을 때의 그 한량없는 사랑의 느낌이 내 영혼과 육신을 뒤흔들었다.

명상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비로운 스승님은 천상의 소리와 빛에서 나오는 엄청난 축복을 매일같이 내게 부어주신다. 나는 최근에야 수행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신비로움을 간직한 풍성한 이수품의 한없는 매력에 이미 빨려들고 말았다. 높은 지

위나 부가 가져다주는 속세의 즐거움에 비할 것인가.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관음법문의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



## 진정한 보시

칭하이 무상사/ 1994년 5월 23일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영어)

누구에게 뭔가를 주려면 주고 나서 잊어버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말고요. 주고 나서 후회하면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돈과 공덕을 잃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 주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도 주지 않는 것처럼 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는 것이라 했죠. 그 말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준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혀 주는 게 없는 것처럼 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집착 없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니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그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예요. 자신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

##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4년 5월 23일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영어)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자 이 세상의 것이죠. 그저 이곳에서 끌어다가 저곳에 대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강물을 끌어다 물탱크에 넣어두면 그곳을 통해 강물이 마을 전체로 보내지죠. 우리는 바로 이 물탱크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받는 사람들일뿐이니까요. 그래서 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도 없죠. 그게 거기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

## 칭하이 무상사

1993년 4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원문 영어)

살아 있는 동시에 여러분 내면의 스승이 되는 참스승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1993년 5월 15일 한국 부산 (원문 영어)

우리 안에는 하나의 중심,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과 통하는 중심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곳으로 의식을 돌릴 때 우리는 서로서로 내면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1993년 5월 28일 홍콩 (원문 영어)

우리는 이 육신이 아니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이고 사랑이며 가장 숭고한 품성입니다.

1993년 3월 17일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물질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다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역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분명하게 밝혀져 온 사실입니다.

1993년 4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참된 행복은 세속의 높은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책이나 사회에서 배운 지식 혹은 재산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 깨달음을 통해 옵니다.

1993년 5월 1일 독일 뮌헨 (원문 독일어)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자신의 잠재적 재능을 완전히 계발한 사람을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스승들의 세계는 완전한 지혜와 미덕, 영원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쉽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환경을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낙원은 더욱 수준 높은 것이 됩니다. ☆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간행물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의 영감들을 제공하고자 국제협회는 칭하이 무상사의 다양한 책들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이런 간행물들은 각 지역 센터나 포모사에 있는 본부 (P.O.Box9, Hsihu, Miaoli, Formosa)에서 구매 볼 수 있고, 스승님의 말씀을 수록한 방대한 양의 오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모든 크기의 스승님 사진들 역시 그곳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정보와 영감을 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원인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어울락어 등 십여 개의 언어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는 뻘뻘한 일상에서 스승님의 책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고마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혜로 가득한 강연집(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을 읽든, 자비심으로 충만한 깊은 내면의 노래(침묵의 눈물)를 읽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읽든 우리는 그 안에서 번쩍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동수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로법어와 같은 책들의 책장을 펼쳐 그 자리에서 스승님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은 영어, 중국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델란드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아랍어, 헤브루어, 터키어, 줄루어,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고어, 힌두어, 네팔어, 벵골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티베트어 이렇게 무려 40개국에 달하는 언어로 출판되어 전 세계에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책, 오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지역 센터나 연락인에게 알아보십시오. 선(禪) 행사 전시장은 스승님의 책과 테이프, 사진, 그림과 보석 등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이나 테이프에 관한 정보는 뉴스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모든 간행물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포모사 본부로 직접 주문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상세한 카탈로그도 우송해 드립니다.

### <영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5)

문답록 (1)

1992년 선티먼 선칠 (1권)

1993년 세계순회강연집 (총 6권)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1권)

침묵의 눈물 (1권)

감로법어 (1권)

수프림 키친 (1, 2권)



<스페인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3)  
사제지간의 편지 (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1권)  
침묵의 눈물 (1권)  
감로법어 (총 2권)

<포르투갈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2)  
문답록 (1)  
침묵의 눈물 (1권)  
감로법어 (1권)

<프랑스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  
문답록 (1)  
침묵의 눈물 (1권)  
감로법어 (1권)

<독일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2)  
문답록 (1)  
침묵의 눈물 (1권)  
감로법어 (1권)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폴란드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  
문답록 (1)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헝가리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  
문답록 (1)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체코어>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1)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스웨덴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중국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8)  
문답록 (1-2)  
사제지간의 편지 (1-2)  
신기한 감응 (1-2)  
1993년 세계순회강연 특별판 (총 6권)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1권)  
침묵의 눈물 (1권)  
무자시(無子詩) (1권)  
감로법어 (1권)  
수프림 키친 (1, 2권)

<어울락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9)  
문답록 (1-4)  
사제지간의 편지 (1-2)  
신기한 감응 (1-2)  
1992년 선티먼 선칠 특별판 (1권)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1권)  
침묵의 눈물 (1권)

<한국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11)  
문답록 (1-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1권)  
침묵의 눈물 (1권)  
감로법어 (1권)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인도네시아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5)  
문답록 (1-3)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1권)

<일본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2)

<태국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1-6)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1권)

<몽고어>

즉각 깨닫는 열쇠  
강연집 (4, 6)

<필리핀어>

침묵의 눈물 (1권)

## 칭하이 무상사 1993년 세계순회강연 시리즈

런 맥기 사저/ 미국 콜로라도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 1993년 세계순회강연집은 여섯 권의 책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매혹적인 박스에 담겨 있고 각각의 책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책의 앞표지에는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이, 뒤표지에는 선별된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실려 있다. 모든 책의 내용은 방문지에 관한 소개와 그곳에서 행한 스승님의 강연, 그리고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으로 꾸며졌다. 게다가 16개국을 방문하실 당시의 스승님 모습을 보여주는 총천연색 사진들이 특별 보너스로 실렸는데, 이 사진들은 마치 찬란한 태양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들처럼 무한한 빛을 발하며 강연집을 더욱 빛낸다.

강연집에는 28편의 강연 전부와 순회강연 중에 진지한 구도자들이 던진 질문들 다수가 실렸다. 스승님은 인내심 있게, 그리고 때로는 유머스럽게 개개의 질문들에 명쾌한 답변을 주셨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 즉석에서 최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스승님의 재기가 돋보인다. 이 여섯 권의 책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한 권 펼쳐들면 하나의 의문에 관한 놀라운 답변이 발견된다. 여러분 자신도 한때는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지금 문득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걸 보고 잊혀진 기억을 되살린다!

뉴스그룹이 제공한 보고서에는 순회강연 동안 스승님을 따라다니며 일했던 작업팀의 헌신적인 봉사도 잘 드러나 있다. 스승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축복에 힘 얻어 세계순회강연을 끝까지 도울 수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에고와 두뇌, 외부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진실로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겸허하게 털어놓는다.

제1권 서두에서 한 입문자는 사심 없는 사랑의 화신, 스승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스승님의 말씀은 스승님 자신의 내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강연집에 수록된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위해 섬없는 노력을 경주하시는 스승님의 고귀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신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기만을 바라신다.

스승님은 만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스승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의상이 꿈속에서나 비전(Vision)속에서 스승님을 보았던 이들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처럼, 스승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깊은 갈망을 일깨워 스승님을 통해 우리가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차각’ 하게 한다. 스승님의 놀라운 말씀은 사실 언어를 초월해 있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이 책에서 어느 입문자가 말했듯이 “스승님의 모든 강연은 청중들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마치 스승님이 수천의 청중들 개개인과 직접 말씀을 나누시는 듯하다.”

작고 아담한 이 책들은 외투 주머니나 작은 손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집에 있을 때, 심지어 직장에서 일할 때조차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의 스승님이 주신 찬란한 메시지를 통해 영감을 얻고 우리 자신이 찾는 해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1  
9  
9  
3



## 자유의 여신상에서 얻은 통찰력

왕 치춘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최근에 나는 자유의 여신상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한줄기 희망의 빛이 내 마음을 환히 비추는 느

낌이었다.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와 평등, 우주적 사랑의 상징이다. 그것의 무량한 빛은 무지와 죄악의 검은 베일을 뚫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준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니 스승님과 날로 늘어나는 미국의 제자들이 떠올랐다.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강하고 진보적인 미국인들은 자유의 여신처럼 어둠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빛나는 해변으로 인도하는 스승님의 굳건한 정신, 평화와 조화, 무상(無上)한 지혜를 날로 뚜렷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Frederic Auguste Bartholdi)는 10년에 걸쳐 이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는데, 고전적인 스타일의 이 작품은 인류에게 원초적인 믿음을 상기시킨다. 일곱 가닥의 빛을 발하는 여신상의 왕관은 전 세계 일곱 대양과 대륙을 가리킨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높이 치켜든 횃불은 어둠 밤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등불이다. 한편 왼손에 들려있는 서판(書板)에는 로마글자로 '1776년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다. 그의 발 밑에 뭉개져 있는 것은 끊어진 폭정의 사슬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족쇄들이 끝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는 '세계를 밝히는 자유'라고 이름지어졌던 이 여신상은 미국의 100주년 독립기념일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프랑스가 두 나라간의 영원한 우정의 상징으로 미국에 선사한 것이다. 이처럼 좋은 의도에서 제작된 이 여신상은 시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스럽고도 친근한 벗으로 다가갔다. 많은 이들이 자유의 여신을 '추방자의 어머니'로 존경한다. 즉 꺾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머니다. 뉴욕의 여류시인 에마 라자루스(Emma Lazarus)가 이 여신상에 '신거인(新巨人)'이라는 소네트를 지어 바쳤는데, 그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존재는 우리 스승님과도 너무 흡사하다.

### 신거인(新巨人)

그 유명한 희랍의 청동거인은  
거대한 정복의 발자국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남겼지만  
여기 우리의 땅, 파도가 출렁이고 해가 지는 곳, 그 문 앞에는  
횃불을 치켜든 거대한 여인 우뚝 서 있네.  
그녀의 이름은 '추방자의 어머니'  
그녀의 횃불은 번개를 가둔 것 같네.  
횃불을 올린 그녀의 팔은 세계를 불러 환영하고  
그녀의 부드러운 두 눈은 도시들의 구도를 짚지어 주는 구름다리가  
있는 항구를 바라보네  
“그대들의 화려한 옛 땅을 간직하라!”  
그녀는 소리없이 부르짖네.  
“피곤에 지친 가련한 백성들,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들,  
그대들의 혼잡한 해안을 떠돌며 오물처럼 취급받는 사람의 자식들,  
세파에 찌들린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  
이들을 다 내게 보내주오.  
나 황금의 문 앞에서 환영의 횃불을 높이 들리니.”

(출처: 에마 라자루스 시집 제 1권, 1889년판)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관용의 정신은 미국의 건국정신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신대륙이 전 세계 수백만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는 낙원이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성스럽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고통받는 일체의 중생을 구하겠다는 자비의 서원을 세우신 우리 스승님이야말로 진정 살아 있는 자유의 여신이다! ☆

칭하이 무상사  
1995년 1월 1일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이 이야기의 제목은 ‘구루 박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구루’란 깨달은 스승을 지칭하며, ‘박티’란 오직 스승만을 생각하고 모든 친구 의를 스승께 바치고 무조건적으로 스승을 따르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스승 혹은 깨달은 스승이 무엇을 말하건 간에 그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구루 박티’의 의미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신실한 구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나 덕 있는 사람의 강연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와 강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신과 하나가 되려면 깨달은 스승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완벽한 스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봐도 그의 눈에는 그들이 한결같이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단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 그는 자신이 만난 스승들한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갖 경전을 섭렵하고 엄청난 양의 책을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거만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승이 크게 깨닫긴 했어도 문맹이라서 경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는 그 스승한테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논쟁에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거나 경전의 출처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스승 역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깨달은 스승을 만나지 못할 밖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런 비판적이고 거만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깨달은 스승이 있다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헌신을 받을 만한 참스승을 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로하려고 아내가 다가오자, 그는 자신을 해탈시켜 줄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아내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그의 아내는 “우리 함께 숲으로 가서 명상해요. 신의 이름을 외며 신께 참스승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뒤

에 신이 보내주신 첫번째 사람을 우리의 참스승으로 공경하는 거예요”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달리 좋은 생각이 없었던 그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자 아내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 숲길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때마침 아주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던 한 도둑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가 그 앞에 엎드리며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웃음) 그런 뒤 명상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자신들의 주문도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원했지요. 인도에서는 수염을 길게 기른 스승들이나 비교적 경지가 높은 수행자들이 사프론 옷을 입고 앉아 제자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미 ‘옴마니반메훔’이나 ‘나무……나무……나무’와 같은 주문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헌신의 순간에 스승은 그들의 주문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 주문이 효력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런 걸 두고 주문을 축복한다고 하죠. 똑같은 주문이라도 스승의 제자가 된 후에는 좀 더 효력이 있어 보이므로 인도의 많은 스승들이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 믿음의 가치

그 부부는 그 도적에게 스승이 되어줄 것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주문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가 도적이라는 걸 몰랐지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도적은 그저 놀랍고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부는 그간에 자신들이 깨달은 스승을 찾지 못해 절망했던 것과 숲에 앉아 있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맹세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그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적은 마음속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속여선 안 된다고 느껴 자신의 실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그의 말을 끝이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그 부부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거나 그들에게 신성한 주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을 게 확실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자신들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 도적도 깊이 감동했지만, 그들이 계속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점차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관가에 잡히면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도망갈 기회를 잡으려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는 동안 그 부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도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눈은 꼭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아라.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라.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신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이 자세를 유지해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는 분명 신을 볼 것이다.” 그 부부가 자신의 다리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은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죠.

그 부부는 매우 고마워하며 그가 시킨대로 손으로 귀를 막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종일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그곳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그들은 감히 몸을 틀거나 살짝 눈을 떠서 스승이 곁에 있는지 살펴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다리는 감각이 없어지고 손은 저렸으며 온몸은 쭈시고 아팠죠. 그래도 그들은 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신이 오시기

만을 염원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계속 그렇게 앉아 있었죠.

비슈누와 라크슈미가 그런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도사람에게 있어서 비슈누는 신성한 신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음양으로 따져보면 비슈누는 양이고 라크슈미는 여성의 마음을 대표하는 음이지요. 깊은 감명을 받은 라크슈미는 비슈누에게 그들 부부 앞에 화신으로 나탈 것을 부탁했습니다. 비슈누 신 역시 그들이 진정 성심으로 노력하고 속은 것이긴 해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속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감동해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비슈누 신이 온 것을 알고 그들 부부는 무척 기뻐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 그에게 예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허락 없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제 너희는 내가 온 것을 알았으니 고통스런 행위를 멈추고 일어서라”고 비슈누가 말을 해도 그들은 감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부부는 비슈누 신이 나타난 것을 매우 감사히 여겼지만, 신에게 복종하려고 자신들의 스승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가요! 도적이 신보다 위대했던 겁니다. (웃음) 비슈누 신은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가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 도적은 붙잡혀 옥(獄)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죄가 너무 무거워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비슈누 신은 왕의 꿈에 나타나 그 도적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장이 무거워 짚은 악몽에 시달리던 왕은 이 역시 하나의 악몽이라고만 생각하고 그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비슈누가 다시 한 번 왕의 꿈에 나타났건만 왕은 여전히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꿈을 세 번이나 꾀 다음에야 왕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요.

한편 비슈누 신은 도적의 꿈에도 나타나 옥에서 풀려나거든 그 길로 숲으로 달려가 그들 부부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명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꼼짝 없이 앉아 있느라 그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신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고 말했지요. 왕은 세 번째 꿈을 꾀 후에 도적을 석방시켜 주었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도적은 꿈에서 신이 지시한 대로 곧장 숲으로 달려가 그들

부부에게 일어나 눈을 뜨고 막았던 귀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자세를 풀자마자 그의 축복으로 신을 뵈 수 있었다며 도적 스승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도적도 꿈에서 신을 만난 얘기를 해주었죠.

그 때 돌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스승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너희의 모습에 정말 감동했다. 기쁘기 그지 없구나. 내가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하니, 지금부터는 신을 숭배하며 성스런 신의 이름을 외워라. 매일 2시간 반씩 명상하고, 채식과 오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명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후로는 도적도 새 사람이 되어 그 부부와 함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진짜 깨달은 스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 스승을 완전히 믿고 따르면, 그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도적을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자신의 스승이 왔고, 우리 내면의 지혜가 열렸으며,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분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스승이나 법문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인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비슈누는 단지 2세계 신일 뿐이고 최고의 신을 만난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이 도적을 스승으로 모신 뒤 2세계 교주를 만났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신심에 깊이 감동했기에 신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기원하고 여러분이 죽을 때 반드시 해탈하게 해주겠습니다. (박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라는 한 개인은 잊고 완전한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명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결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승을 완전히 믿고 스승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신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며, 명상할 때 밝은 빛을 보고 천국의 소리를 듣고 많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스승이 좋은 나쁜든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말해 줍니다. 스승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죽을 때 알게 되겠지요. ☆

스승과 제자사이



세상은 내게 주어진 거대한 무대,  
당신은 세상을 축복할 모든 도구를 내게 주셨죠  
지금 여기,  
당신처럼 나도 벌써 부드러운 미소로 싸우고 있어요  
다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 모든 상황과 감정, 분위기  
아침 낮이나 저녁  
모든 것이 날 우울하고 낙심하게 하네요  
마음 속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아, 나의 유일한 이여, 위대한 스승이시여  
(내 안에 피어있는 꽃이여)  
내게 말해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역시 이 곳에서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헤쳐갈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나와 함께 고통받고,  
내가 행복할 때 당신은 나와 함께 행복해 하죠

## 나의 유일한 이여

원월라이 락칸디 사저/ 독일  
(원문 영어)

그러니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결코 다시는 갈라서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린 함께 세상을 축복할 거예요  
나의 유일한 이여, ‘찬란한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요  
나의 유일한 이는 ‘이 생명, 영혼에 깃든 사랑’의 화신



## 부모님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다

툰신

포모사의 내 고향에서 차를 수확할 때였다. 난 아버지를 따라 차 농장에 가서 차잎 따는 일을 도왔다. 정오쯤 되었을 때, 같이 일하던 한 부인이 내가 점심을 안 챙겨온 줄 알고 자기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했다. 하지만 난 내 도시락을 준비해 왔었다. 그녀는 완전한 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께선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그 애는 당신 거 안 먹을 거요. 당신보다 더 철저히 채식을 하니까.”

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와 언니가 채식을 하며 수행을 하던 초기 시절에 온 집안을 발각 뒤집어 놓았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께서 완전히 변하셨다. 물론 아직도 수행엔 관심이 없으시고, 때때로 나와 언니에게 일부러 반대조의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 당시엔 우리가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분들의 오해를 샀던 것이다. 그러니 우린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검토해 봐야 한다.

명절 때나 무슨 날에 집엘 가면, 부모님께선 우리가 아무 것도 안 먹고 영양부족이 될까봐 전 가족들을 위해 채식연회를 주문하자고도 하신다.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간단하고 영양 많은 채식음식을 장만해서

부모님께 드리면, 아주 기쁘게 드시며 채식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기도 한다. 어머니께선 특히 더 사랑스러우시다.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억지로 채식을 하게 하신다.

우리는 종종 어머니께 단체에서 있었던 재미있고 가슴 훈훈한 이야기나 시후 센터의 환경미화 작업에 대해 말해 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점점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지금 어머니께선 생활예술이나 미감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시며, 사람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집 주변에 꽃이나 화초를 심고 가꾸는데 열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그들을 위해 제일 크고 좋은 과일을 보내기도 하신다. 우리가 일부러 채식을 하라고 부추기면 어머니는 아이처럼 천진하게 미소만 지으신다.

난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온 마음으로 희생하시는 걸 보면서 항상 스스로 자문해 보곤 한다. ‘수행의 길에 있어서 나도 저렇게 희생 봉사할 수 있을까?’ 세속의 지위나 명예, 부, 재산으로 부모님께 보답할 수는 없다. 오직 신실하게 수행하고, 이 귀한 인간의 몸으로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의 그 희생을 갚지게 하는 것이리라. ☆



칭하이 무상사/ 1995년 6월 6일 포모사 시후

우리가 진정 내면으로 정직하길 원하고, 자신의 생활이 안락한지 자기 마음이 깨끗한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행복한지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의식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인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나쁜 습관에 젖고 자기 환상에 빠진 상태로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전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감로법어 

##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차이 밍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우리 어머니는 오랫동안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1999년 1월 감기에 걸려 뇌사상태에 빠지셨다. 어머니는 입원해서 며칠동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간염과 패혈증 바이러스의 증식으로 끝내는 삶을 마감하셨다. 이 기간에 우리 가족 전원은 죽음의 과정에서 한 입문자를 이끄는 스승의 가없는 사랑과 능력을 톡톡히 목격했다.

투병생활 초기부터 우리는 어머니가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스승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통받으시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최상의 안배를 해주시기만을 바랐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에 우리 가족은 마음속에서 성스런 명호들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집중치료실(ICU) 밖에서 명상하는 동안 성스런 명호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우리를 에워쌌다. 성스런 이름들이 나를 완전히 뒤흔들 때 복도는 빛으로 환했다. 형제자매들 역시 좋은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집중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낮빛이 어두워지고 눈이 부풀어올랐다. 어머니는 완고하고 의지력이 강한 분이셨다. 그래서 커다란 고통을 참고 계셨다.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호를 염했다. 얼마 후 나는 눈이 부셔서 볼 수는 없었지만 성호가 높고 낮은 음조로 방안에 울려 퍼지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종들이 울리는 소리도 들었다. 밤 11시, 우리 자매들이 모두 침울해 있는 걸 보고 오빠 가운데 한 명이 어머니와 천국에 가서 아주 찬란한 집들을 봤다고 말했다. 우리와 함께 명상하러 온 한 사형도 육신과 연결된 실만을 남겨놓고 스승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걸 보았다고 했다. 아마도 이는 어머니가 그 당시에 집에 계셨던 아버지를 근심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 날 의사는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쯤 감긴 눈으로 어머니는 뭔가를 기다리시는 듯 했다. 정맥주사를 완강히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머니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신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어머니 주위에서 불찬을 불렀다. 그러자 어머니

는 단잠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먼길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이셨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나는 엄청난 축복을 느꼈다. 불찬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자 나의 의식은 지혜의 눈으로 모였고, 오른편으로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아, 스승님! 당신의 노랫말처럼 당신은 진실로 사랑의 바다요, 생명의 강이십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머니가 축복받고 당신 자신의 고통과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머니를 돕



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스승님의 축복이 강하게 내렸을 때 그 축복으로 인해 고양되는 건 우리였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는 수녀가 되고 싶어하셨다. 어머니는 살아 계셨을 때나 돌아가실 때나, 다른 세계로 환생하기 위해 이 육신을 버려야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셨다. 그리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도 확인시켜 주셨다.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어머니는 크나큰 공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일째 되는 날 우리는 어머니를 화장했는데, 남은 재 속에서 천국의 광휘를 상기시키는 다채로운 사리들이 발견되었다. 우리 가족은 이 사리들을 나눠 각자의 집으로 가져갔다. 내가 가져온 사리는 타이베이에서 온 친척들이 보고 난 이틀 후에 색깔이 크림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내 여동생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리를 보여주고 스승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는데, 동생이 가져간 사리 역시 여동생의 식구들이 보고 난 이틀 후에야 크림색으로 변했다. 그 당시 입문하지 않았던 조카들 세 명(현재는 입문했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엄마! 관음법문은 정말로 멋져요!” 해가 바뀌자 사리들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어머니를 삼계 너머로 데려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사리라는 것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는 스물 남짓 되는 입문한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에게 진리의 길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지속적인 수행을 격려하시기 위해 사리를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내게는 또다른 축복이 있었다.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오빠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다. “여기서 어머니를 돌봐야지! 어째서 밖에 나가 물건 구경이나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언니가 곧 나를 말렸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의 반쯤 감긴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스승님께 잘못을 빌었다. 그러자 갑자기 가슴이 후비듯 아왔다. 나는 아주 강한 힘이 나의 몸과 오른쪽 귀를 계속

해서 흔드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말들이 섬광처럼 스쳐갔다. 과연 너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어머니를 사랑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너는 입문해서 의지할 스승님이 계신다. 하지만 큰오빠는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너희 모두가 큰오빠를 비난했지만, 그도 역시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큰오빠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것처럼 큰오빠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그는 입문하지 않은 단 한 명의 형제다. 그는 이미 최선을 다해 형제자매들을 돕고 있다. 누가 그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가?

이건 스승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강한 진동력과 에너지를 느꼈다. 눈물이 흘렀다. 큰오빠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를 껴안으며 그에게 사과했다. 스승님, 당신의 가없는 사랑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아직까지는 간혹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곧 마음을 가라앉힌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온갖 장애를 제거하고 이 게으른 제자의 완고한 마음을 깨닫게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뿐이었다.

나는 9년 전에 입문했다. 처음부터 난 빛도 소리도 체험하지 못하는 게으른 수행자였지만, 스승님은 결코 나를 단념하지 않으셨다. 스승님은 줄곧 나를 고양시킬 방법을 찾고 계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일 년 동안 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좌절과 퇴보는 사실 내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제 좀 알 것 같다. 지난 한 해를 통해 나는 스승님의 위대한 힘이 나의 삶을 돌본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오직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스승님, 제게 그토록 위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나와는 거리가 먼 것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잡지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이야기들이 모두 진실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나의 어머니는 한달 동안 심하게 앓으셨다. 아주 어둡고 습한 정글에서 홀로 있는 꿈을 꾸셨을 땐 일주일도 넘게 한 잠도 이루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정글 속에서 누군가가 있는 걸 보고 그에게 다가갔더니 그가 다른 어떤 존재로 모습이 변했다고 하셨다. 그는 계속 모습을 바꾸며 어머니의 오른팔을 두 번이나 때렸다. 그래서 어머니의 팔에선 피가 흘렀고 곧 팔이 무섭게 부풀어올랐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너무도 두려웠다.

清

##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스승님의 이름을 불러라

샤히드 마흐무드 사형  
영국 (원문 영어)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팔이 괜찮은지를 확인하셨다. 그리고는 멀쩡한 팔을 보고 놀라셨다.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 문득 그 꿈이 다시 생각났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아버지께 물으니 아버지는 그저 코란의 기도 편을 읽어보라고만 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두 가지 일을 당부했다. 하나는 더 이상 동물의 피와 살을 먹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스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분의 능력을 잠시 빌려 자기 자신이 믿는 종교를 보완하는 것뿐이지 자신의 신앙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드렸다. 어머니는 내 말을 이해하셨다.

나는 또 스승님은 5세계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내려오신 분으로 스승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나 자신도 그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게다가 나는 스승님께서 행하신 많은 구제사업도 알려드렸다. 나는 어머니께 뉴스잡지에 실린 스승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스승님의 명호를 암송하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 당신이 믿는 성인이나 신께 기도해 보고 효험이 없으면 스승님께 기도하라고 설명 드렸다.

海

어머니는 좋다고 하시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깨셨지만, 어쨌든 밤에 잠은 주무실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업장을 씻는 과정이라고 설명 드렸다. 다음 날도 잠은 주무셨지만, 역시 아침에 극심한 고통과 설사에 시달리셨다. 어머니는 크게 걱정하셨다. 어머니께 스승님의 명호를 불렀냐고 여쭙었더니 뜻밖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식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발 스승님의 명호를 부르세요. 스승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니 틀림없이 엄마를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 전에 스승님의 명호를 염하겠다고 하셨다.

그날 명상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든 나는 꿈에서 많은 화신들을 보았다. 어머니를 만나러 온 천사들 같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방문해서 어머니의 몸을 수술하고 치료했다. 부드러운 사랑의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해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계셨다. 나는 스승님의 능력이 지난 밤 어머니께 임했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낫게 해준 신께 감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다. 나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그저 스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당부한 뒤, 스승님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미래와 수천, 수억의 세계를 초월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또 어머니께 일단 괜찮아지셨어도 계속 채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처음 병이 난 것도 다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자인하시면서 앞으로는 채식을 하고 고기에는 일체 손도 대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 아침 나는 스승님의 자비에 너무도 감사한다. 스승님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나는 이 일을 통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스승님의 이름을 불러 스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런 스승님의 능력을 단 한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위대한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

## 수행자와 배고픈 귀신

로우칩 쿤 사형/ 싱가포르 (원문 영어)

한 수행자가 배고픈 귀신에게 잡혔어요.  
그 귀신은 그를 잡아먹으려 했죠.

그 수행자는 전혀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잡아먹히기 전에 신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제껏 죽기 전에 신을 기억하려했노라고 말해왔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스승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스승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동수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  
스승의 일을 하던 때의 기억이 문밖듯이 밀려왔죠.

또 그는 자비로운 신이 그에게 내려주신 것들도 회상했어요.  
단순한 생활과  
따스한 인간의 마음과  
지복의 순간에 맛보는 순수한 사랑과  
온정 넘치는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니 그의 영혼은 평화 속에 잠길 수 있었어요.

드디어 눈을 뜬 그가 이렇게 말했죠.  
“이젠 만족스럽소.  
나를 잡아 잡수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에  
그 수행자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나의 축복을 가져가시오.”  
귀신은 이렇게 말한 뒤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내게 신을 알래워줘서 고맙소.”

이렇듯 모든 중생에게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관

음

웹

사

이

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 - 영어, 중국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 - 중국어/ SMCH 서점)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kr> (한국 - 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kr> (한국 - 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 - 일본어)  
<http://www.Godsdirectkontak.org>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 - 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울락어)  
<http://mason.gmu.edu/~lduan/Godsdirectcontact> (미국 - 영어)  
<http://members.tripod.com/~Godsdirectcontact/> (미국 -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 -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및 간체자)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 - 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 Windows Media Player Audio & Video 지원)  
<http://www.members.xoom.com/meditations/GodsDirectContact.html> (미국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 - 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 - 프랑스어)  
<http://www.chinghai.cz> (체코 - 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 Real Audio service 제공 - 영어, 어울락어)  
<http://www.telecom.at/chinghai> (오스트리아 - 독일어)  
<http://members.xoom.com/faybish/Godsdirectcontact.html> (벨기에 - 영어)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quanyin> (영국 - 영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 - 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 - 스웨덴어)  
<http://www.quanyin.narod.ru> (러시아 - 러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영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  
 뉴스그룹: [lovesrc@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src@Godsdirectcontact.org)

##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가 실린 웹사이트 주소

중국어 잡지 111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chinese/111/> (미국)

영어 잡지 111호: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11/> (미국)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news/news111/>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english/111/>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index.htm> (포모사)

어울락어 잡지 111호:

<http://Godsimmediatecontact.net/aulac/n111/> (VNI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nu/news/111/> (VNU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iscii/news/111/> (MSCI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ni/news/111/> (VNI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ps/news/111/> (VPS 활자)

스페인어 잡지:

<http://Godsdirectcontact.com/eNews/spanish/>

일본어 잡지: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kannon/news/newsindex.htm>

프랑스어 잡지: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News/index.html>



제자들이 말하고 칭하이 무상사께서 통역함  
스승과 제자가 플로리다에 머물며 한담을 나눈 저녁  
1999년 10월 9일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와 영어)

## 항상 나눠요 !!



한 노부부가 식당에 들어가 먹을 걸 주문했어요. 콜라 한 잔과 감자튀김 1인분이었죠.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그의 부인도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는 나온 음식을 둘로 나누기 시작했죠. 콜라를 두 잔에 나눠 따르고 감자튀김도 반으로 갈랐어요. 그런 뒤 콜라 반잔과 감자튀김 반 인분은 부인에게 주었죠. 그는 콜라를 마시고 감자튀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부인은 콜라만 마실 뿐 감자튀김은 먹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1인분을 더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드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요. 우리는 40년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늘 함께 나눠왔소. 뭐든 둘이 반씩 나눠가졌지. 그러니 걱정 마시오. 어쨌든 호의는 고맙구려.” 그런데 노부부는 아무 것도 먹지 않았어요. 노인만 먹었죠. 그래서 그 남자는 부인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그 이가 틀니를 사용하는 날이에요.” ☆



## 우리 집 부엌에 불이 났어요

어느 사람 집에 불이 났어요. 겁에 질린 그는 황급하게 소방서에 알렸죠. “큰일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불이 났다구요! 어서 와서 불 좀 꺼주세요!” 그러자 소방서 서장이 물었어요. “근데 불이 어디서 났습니까? 불이 난 장소가 어디니까?” “우리집이에요. 아주 급해요!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구요! 어서 와 주세요!” “예, 당신 집에서 불이 났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디냐구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 부엌이요!” 소방서 서장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집으로 찾아가지요? 내 말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당신 집으로 찾아가냐구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타고 올 차가 없나요?” ☆

## 하나가 모자라요

타이타닉 2호가 지금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장이 물었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러자 선장은 말했죠.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구명조끼가 하나 모자랐던 거예요. ☆



# 전 세계 연락처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Mr. Christopher Luccarda 27-21-5311491  
llove@earthling.net  
27-31-262-5111  
더반 Mr. Suresh Patel 27-31-262-5111  
sureshp@intekom.co.za  
Ms. Edith Lonsdale 27-31-201-3347  
pnlons@iafrica.com  
이스트 런던 Mr. Anthony Sabbagh 27-437-352575  
sabbagh@iafrica.com  
요하네스버그 Mr. & Mrs. Chen Tai Lin 27-11-6404806  
smch@global.co.za  
Ms. Sonya Gusson 27-11-6229455  
sonya\_usa@hotmail.com  
프리티리아 Mr. Daniel Pierre de Villiers 27-12-8045766  
pdv@pixie.co.za

### 마루이티어스:

포터 로위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230-253-5699/F:230-216-3417  
sinolink@intnet.mu

### 토고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센터 228-222864  
Mr. David Chine 228-215551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Hui-Ling Ling 54-11-4-9518130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Mr. Norberto Bellino 54-11-4209-1493

### 볼리비아: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상 파울루 센터 55-11-228-7029/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570-1180  
brcenter@hotmail.com

### 벨렌

칠레: Mr. Wei Cheng Wu 55-91-223-9414

###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nghai@chilesat.net

### 라세레나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코스타리카 센터 506-268-8666  
Juanbta@solracsa.co.cr  
Ms. Santa Morales 506-259-5993  
Ms. Laura Chen 506-220-0753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852-1256

tecenter@ragnatela.net.mx  
과나후화토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tycenter@starmedia.net  
파나마: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gleone@sinfo.net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Mr. Varovski Velarde 51-84-246256  
varovski@mixmail.com  
cusco centro@yahoo.com

### 쿠스코

Ms. Peruzk Camargo 51-84-231436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Mr. Luis Rebaza 51-44-260871  
Mr. & Mrs. Ming-Sen Lu 503-2746282  
Mr. Roger Rodriguez Molina 503-2840279  
rogerrod@es.com.sv

### 푸노

### 트루히요

### 엘살바도르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xdang@powersurfr.com

###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Ms. Wei Zhong 1-519-438-3702  
wzhong2@julian.uwo.ca

### 런던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iprimus.ca

### 오타와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Le Lam 1-613-260-1698  
lamle@sprint.ca

### 토론토

Mr. Armand Laplante 1-613-745-6050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home.com

###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aicompro.com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sheila@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애리조나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aol.com  
Mr. Irving Raimi 1-623-975-130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Vegetarian House 1-602-264-3480

아칸소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arcenter@juno.com	미주리:		quach001@juno.com
캘리포니아:			*롤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네브라스카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trobert@yoda.unl.edu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네바다:		
	Ms. Tena Polny Normandin	1-714-968-3359 qin-na.polny@mindspring.com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뉴욕: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dong@phys.columbia.edu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andpam@earthlink.net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99-6473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ibm.net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von@swoca.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wisdme@aol.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오리건: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juno.com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플로리다: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r. & Mrs. Alister Phuoc Minh Pham	1-503-642-1252 AlisterPhuocPham1@juno.com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tls77@aol.com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Diep.Ngu.PA@Juno.com
*올랜드	Mr. & Mrs. Tze-Chen Chen	1-407-321-8297 1-407-771-8895 tze-chen.chen@convergys.com		Mr. Shi-Tao Yeh	1-610-640-0463 smchpa@juno.com
조지아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nt@aol.com	텍사스: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wul@austin.rr.com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s. Andrea Seu Chow Lee	1-808-599-4339 andreasmch@hotmail.com			DallasCenter@hotmail.com
일리노이	Mr. & Mrs. Julian L. Chen	1-630-416-3821 yyvonne123@aol.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인디애나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Weidong Duan	1-214-528-9178 water96@yahoo.com
켄터키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Mr. Jimmy Nguyen	1-972-946-3398
메사추세츠: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roltex@interserv.com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DNgyuen376@ao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yyfb48a@prodigy.com		Mr. & Mrs. Wayne Cheng	1-281-870-8081 joycheng@earthlink.net
	Ms. Cynthia A. Lombardo	1-508-388-4306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David R. Craig	1-703-532-1437 justmeditate@hotmail.com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94@hotmail.com	*리치먼드	Mr. David Young	1-757-5872458 davidkyoung@hotmail.com
미시간	Susan Manturuk	1-616-588-6341 manturuk@torchlake.com	워싱턴: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007@hotmai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푸에르토리코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아시아\*\*\*

**버마**  
**포모사:**  
타이베이 Mr. Sai San Aik 951-667427  
센터 886-2-23757527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카오슝 Mr. & Mrs. Yao-Jong Chang 886-7-7454062  
Mr. Fei Lung Wu 886-8-721692  
Mr. Yuan Hua Wu 886-8-7562020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yahoo.com  
lovequanyin@hotmail.com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Mr. Rong-Tser Teng 62-31-5678962  
smch-sby@idola.net.id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l@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Swastika 62-21-7364470

**일본:**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2628-8646  
cal13840@pop07.odn.ne.jp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b.biglobe.ne.jp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오사까 Mr. Ryu Norithito 81-6-67829643  
**한국:**  
서울 서울 센터 82-2-5772158  
sunchair@hitel.net

오종철 82-2-5755080  
김영철 82-2-2981822  
유태인 82-2-7953927  
정창열 82-2-22038186  
부산 부산 센터 82-51-5819200  
smpusan@unitel.co.kr

이상식 82-51-7835399  
송호준 82-51-9574552  
황상원 82-51-8057283  
이원석 82-51-8946645  
전주 전주 센터 82-652-2747553  
임지환 82-652-2729087  
인천 인천 센터 82-32-5795351  
백용재 82-32-8880110  
대구 대구 센터 82-53-7434450  
김익현 82-53-9572858  
유진호 82-53-8568509  
장익현 82-53-7535264

대전 대전 센터 82-42-6254801  
김수동 82-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82-62-2329613  
김소연 82-62-2325630  
제주도 제주 센터 82-64-99-6113  
안동 안동 센터 82-571-8213043  
김삼태 82-575-8734961  
영동 영동 센터 82-582-5325821  
houmri@unitel.co.kr  
창옥 창옥 센터 82-573-6731399  
chinghai@unitel.co.kr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alzuz@macau.ctm.net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페낭 센터 60-4-8279903  
smchpg@tm.net.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캘라룸푸르 센터 60-3-9873904  
klsmch@tm.net.my  
Mr. Lau Woh Kwong 60-3-2213610  
Ms. Mei-Huon Pan 60-12-2786098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82575/977-1-521928  
tashi@htp.com.np  
포하라 센터 977-61-28144  
필리핀 팔라완 센터 63-48-4339248  
vegthouse@hotmail.com  
싱가포르 센터 65-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846-9237

**태국:**  
방콕 센터 662-682-0138,9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7126  
핫야이 센터 66-74-368329-30  
(c/o 155)  
콘캔 센터 66-43-261878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유럽\*\*\*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2-227303  
porrera@hotmail.com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64-3909200  
ChinghaiVienna@hotmail.com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1-5236978  
sound@gmx.at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5030  
kim.luu@cfwb.be  
**불가리아** Mr. Ruslan Staykov T/F:3592-575358  
oldruslan@yahoo.com

**체코:**  
프라하 센터 42-02-90058578  
prague\_center@hotmail.com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zelko@mindless.com  
45-66-190459  
vianne\_@hotmail.com

**핀란드:**  
**헬싱키**      Mr.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fin\_con\_hhanh@artic.net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iobox.fi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8-0559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newsfrance@claranet.fr

**베히/마른**      Mr. Abdul Alim Pascal &      33-1-60200014  
Ms. Ngo Thi Huong      tngo@free.fr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독일:**  
**베를린**      Mr. Phan Duy Phuong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Ms. Johanna Hoening      49-89-3401254  
ChingHai@aol.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49-211-5144785  
ngoc-thao.nguyen@uni-bielefeld.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그리스:**  
**아테네**      Mr. Constantine Manos      30-61-278106  
constantinem@hotmail.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n5trung@compuserve.com

**헝가리:**  
**부다페스트**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tatv.hu

**아일랜드:**  
**더블린**      Mr. Lux Tamas      36-309-611994

**노르웨이:**  
**오슬로**      Ms. Dora Seres      36-1386-2741

**폴란드:**  
**치에신**      Mr. Liang Ziming      48-033-514988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0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master\_chinghai@poczta.onet.pl  
mintra@polbox.com  
minhtrang4@yahoo.com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63-814981  
dbk@siol.net

**스페인:**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Lidia Kong      34-91-6410275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Ms. Xi-Chun Wang & Xin-Lan Yang      34-96-3336208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715269

**스웨덴:**  
**말뫼**      Mr. & Mrs. John Wu      46-40-97345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sirfield.nu

**웁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premila-perera@pharmacog.uu.se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widlund@hem.utfors.se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Ms. Klein Ursula      41-22-3691550

**영국:**  
**런던**      센터      44-208-3742743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44-171-5847007  
pnl@matters19.freemove.co.uk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체스터**      Mrs. Janet Weuer      44-1782-414989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teet Lillig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러시아:**  
**모스크바**      Mr. Rupasiri Perera      7-095-2424953  
perera-rupasiri@mtu-net.ru

**\*\*\*대양주\*\*\***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브리즈번**      센터      617-3374-3339  
briscentre@hotmail.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캔베라**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dme.qld.gov.au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시드니**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센터      61-2-9724-4997

**멜버른**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연락인 사무실      61-2-9604-4589

센터      61-2-9787588

Ms. Daniel Drenic      61-3-95239484

**퍼스**      Mr. & Mrs. Nguyen Luong Nang      61-3-93312991  
Mr. Alan Khor      61-3-98574239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4-7661

**태즈메이**      Mr. Peter John Boatfield      61-3-62293878

**뉴질랜드:**  
**오클랜드**      Ms. Sharllen Lee      649-4839454  
shale@ihug.co.nz

Ms. Amy Ma      649-4802839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T:64-3-3436918/F:3436928  
chaomin@hotmail.com

**해밀턴**      Ms. Pi-Yu Ha      64-7-8562368  
jadeha22@hotmail.com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는 경우 가까운 국가나 도시의  
연락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Tham My> 1999년 12월 15일자 (원문 어울락어)  
미국 <Me Vietnam> 1999년 12월 30일자 (원문 어울락어)

## 세기의 여성



어울락인은 1965년에서 1975년까지 진행된 베트남 전쟁과 디엔 비엔 푸 전투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특히 남부 어울락의 함락 이후에 수백만의 어울락인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적인 난민이 되었다. 이들의 대규모 도피는 세계 곳곳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울락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 정착했는데, 이들 나라에서 어울락인 교포사회는 많은 연민과 존경을 자아냈다. 그들은 과학, 기술, 경제,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세움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들 나라에 명성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한 여성이 있다. 재난과 불행과 굶주림이 있는 곳, 그곳에 그가 있다. 그는 자신의 크나큰 사랑으로 이처럼 불행한 이들을 찾아가 위로했다.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 있는 어울락 난민들과 어울락과 캄보디아의 수재민들에게 관대한 도움을 베풀어왔다. 이 유명한 자선활동가는 바로 칭하이 무상사다.

칭하이 무상사는 어린 시절을 보낸 어울락이나 어

러 활동을 벌인 미국에서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자선활동가이자 예술가이다. 그는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펼쳐왔다. 이 여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국제협회는 한 마디로 자비의 표상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중부 어울락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운 그는 성장해서 학업을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도 국제적십자사에서 간호사와 번역가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불행이 있는 곳에 그가 있었다.

그의 그림, 음악, 시, 보석과 의상디자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네, 이런 그의 작품들은 그가 방문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1995년에 그가 디자인한 의상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의 도시인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 포모사, 홍콩, 싱가포르에서 무대에 올랐다. 이들 창작활동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그가 독자적으로 벌이는 재난구호활동의 재원이 된다.



칭하이 무상사는 여러 정부나 단체로부터 '세계평화상'이나 '세계영적지도자상', '국제인도주의시민상' 등을 포함한 다수의 상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뉴욕과 제네바 유엔에서 초청강연을 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국제적인 자선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지도자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밥돌 상원의원과 다니엘 아카라 상원의원, 존웨이 주지사, 미국 중서부 6개주 주지사(테리 브랜스타드 아이오와 주지사, 짐 에드거 일리노이 주지사, 아미 칼슨 미네소타 주지사, 델카나한 미주리 주지사, 토미 톰슨 위스콘신 주지사, 조앤 퍼니 칸사스 주지사),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왕과 라나리드 왕자, 프랭크 파시 전 하와이 시장, 조순 서울 시장, 안희 수 배우시 벨기에 시장, 수렌 아브라함얀 아르메니아 예레반 시장, 필리핀 마닐라 시장, 태국 외무부의 니미트르 아즈카리아키티사코 울 사무총장,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 피터 스팔딩, 인도의 7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위대한 종교지도자 다다 바스와니.

특히 1997년 캐나다 퀘벡에서 겨울 눈사태가 발생했을 때 스테하이야신테 시의 클라우디 버니어 시장과 세인트 진 서 리첼리우 시의 미로슬라우 스메레카 시장, 그랜비 시의 미첼 듀체스뉴 시장, 아테 아다마세 시의 마우리스 벨게론 시장이 눈사태 피해자들을 도와준 그의 관대한 원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음악적인 활동의 하나로 지난 1996년 연말에 롱 비치 테라스 극장에서는 시와 음악의 밤, '홀려간 사랑의 노래를 찾아서'가 열렸다. 이 공연에는 음악가 팜 두이, 투호, 레 웬 푸옹, 나트 능안, 두이 칸, 능우엔 딘 능야, 푸옹 부와 유명한 가수 칸 리, 레 투, 마이 푸옹, 타이 히엔, 타이 타오, 레 웬, 마이 푸옹, 큐 로안, 마이 휘엔, 능우엔 딘 능야와 그의 가족, 트란 반 안, 수안 패트, 투안 능옥, 두이 콕, 단 홍, 트란 콕 등 재능 있는 어울락 가수들과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음악회는 유명한 다수의 걸작들을 남겼으나 현재 조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어울락 예술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1997년 연말에는 또 하나의 음악회가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음악회 '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이 바

로 그것이다. 이 음악회에는 데이비드 알켄스톤, 톰 마히우, 래리 보네트, 아릴리 페인버그, 캐더린 두바스, 진 루이스 베이돈, 팜 두이, 트란 콕 하이 바흐 엔, 엔드 콕 레, 두이 콕, 조셉 휴, 레 웬 푸옹, 타이 히엔, 이란, 텔리나, 헨리 축, 퀴 푸옹, 큐 형, 아이 반, 탄 란, 누 퀴엔, 능우엔 딘 능야가 이끄는 전통음악단, 트란즈 밴드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한 미국인과 어울락인 가수들이 참여했으며, 4천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공연의 목적은 어울락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퇴역군인들을 돕고(이 자리에서 미국 퇴역군인사무부에 10만 미국달러가 기부됨), 여배우 큐 친이 주도하는 어울락 어린이기금에 원조를 제공하여 어울락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활동을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998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자선음악회 '평화의 음악—하나된 세상'이 해마다 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리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슈라인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에는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작곡가와 가수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6천여 명의 청중들이 자리를 메웠다. 할리우드 보도(步道)에 이름이 새겨진, 오스카상 시상식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빌 콘티(오스카상와 에미상 수상), 작곡가 프레드 칼린(오스카상와 에미상 수상), 작곡가 피터 보이어(전국음악상 5회 수상, 교향시 '타이타닉' 작곡),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조지 대처(셀린 디온이 부른 노래 '연인을 내게 보내주오(Send Me A Lover)' 작곡), 오스카상 9회 수상자 알프레드 뉴만의 딸 마리아 뉴만, 전설적인 여배우 테비 레이놀드(30편이 넘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함), 배우 존 모치타(텔레비전 예술·과학부문에서 오스카상 획득), 영화 '타이타닉'을 연주한 국제적인 밴드 갤럭시 스톤, 비치보이스 패밀리와 프렌즈, 그리고 65인으로 구성된 대형오케스트라가 이날 훌륭한 공연을 펼쳤다.

이 자선음악회는 암이나 다른 불치병을 앓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성(聖) 유다 어린이 연구병원(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에 15만 미국달러를, 별빛 어린이 재단(Starlight Children's Foundation)에 10만 미국달러를 기부했다. 이 공연이 있은 후 미국의 정평 있는 신문사들(The Hollywood Reporter, Los Angeles Times, LA Weekly, Billboard, Balita, Philippine Mabuhay News

등 다수)과 어울락 언론매체들(Nguoi Viet, Vier Bao Kinh Te, Viet Dong, Saigon Times, Van Hoa, Suc Song, Van Hoi Moi, Tham My, Nghe Thuat 외 다수)이 이 날의 자선 공연을 기사화했다.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와 사랑에 감명을 받은 성(聖) 유다 어린이 연구병원은 자신들의 연례 만찬에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 음악가들과 함께 칭하이 무상사를 초대했다. 이 행사에 이어서 에드바드 아코피아안 씨(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며 글렌데일 스튜디오 부사장)가 헐리 우드의 비버리힐스 호텔에서 열린 오스카 연회에 칭하이 무상사를 특별손님으로 초청했다. 칭하이 무상사가 행사장에 도착하자 말리부(Malibu) 텔레비전 기자인 쿠키 코타 씨가 그를 인터뷰 했고, 여러 유명 배우들과 인사들이 그와 대화를 나눴다.

이들 가운데는 여배우 스텔라 스티븐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The Poseidon Adventure)'에서 진 헤크만과 출연하였고, 영화 '걸스! 걸스! 걸스!(Girls! Girls! Girls!)'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출연함]도 있었는데, 그는 칭하이 무상사와 대화를 나눈 뒤 그분의 우아함과 소박함을 찬탄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버즈 알드린과 그의 아내는 칭하이 무상사와 같이 사진촬영을 했다. 그 외에도 배우 토니 커티스(마를린 먼로와 주연함), 배우 로드 스티거(슈퍼스타 말론 브란도와 주연함), 배우 헨리 실버('White Fang to the Rescue'에 출연), 배우 코니 스티븐스(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와 함께 어울락 순회공연함), 슈퍼스타 마크 해밀('스타워즈'에 출연) 등이 칭하이 무상사를 만났고, 칭하이 무상사와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근래에 칭하이 무상사는 유럽 18개국(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을 순회하며 관음법문을 전했는데, 이들 순회강연에서 그는 수십 만 청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순회강연 중 칭하이 무상사는 자비롭게 방문지역에 있는 자선단체와 공공단체들, 즉 양로원과 고아원, 병원과 학교 등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 칭하이 무상사는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신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터키, 그리스, 포모사, 어울락, 인도,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홍수 재난구호를 돕고 있다. 남아공의 정부와 의회는 1999년 12월 1일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세계 종교회의의 개막식에 칭하이 무상사를 연사로 초청했다. 이 행사에는 50여 명의 위대한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인도주의 활동으로 칭하이 무상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어울락 여인이 되었다. 진정 그는 해외 어울락 교포사회로부터 '세기의 여인'으로 존경받을만 하다.

팜 만 쿠옹  
1999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

#### 팜 만 쿠옹에 대하여

작곡가 팜 만 쿠옹은 hue( Hue)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교육과 문학을 공부했다. 그는 사이공에 있는 페트루스키 고등학교와 마이 토, 형 다오, 반 혹, 능우옌 반 퀘, 레 바오 턴, 후인 티 능아 에 있는 능우옌 딘 쉐 고등학교 등 명문사립 및 공립학교에서 철학과 어울락 문학, 역사, 지리, 음악을 가르쳐왔다. 또 1975년전까지는 투 주인 뮤직 프로덕션에서 일했고, 어울락 텔레비전에서 프로를 하나 진행했으며, 사이공 라디오에서 '현대의 꽃들'이라는 프로를, 군인 방송에서 '음악가 군인들'이라는 프로를 맡아 진행했다.

팜 만 쿠옹은 가을 노래, 분홍 골짜기, 연인을 위한 눈물, 그 시절 그 학교, 당신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검다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사랑은 아직도 여기에 등 100편이 넘는 노래들을 작곡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팜 만 쿠옹 밴드의 지휘자이자 월간지 <Tham My>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 세기의 여성

캐나다의 <Tham My>지 1999년 12월 15일자와  
미국의 <Me Vietnam>지 1999년 12월 30일자에 실림.



시인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홍콩 난민캠프  
앞에서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다.



미국 중서부 6개주에서 수여한 '세계 영  
적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칭하이 스승



한국 서울 시장이  
집무실에서 칭하이  
스승을 맞이하다.



신비의 밤 향연 '심미의 세계로의 여  
행'이 펼쳐지는 동안 무대에 오른  
칭하이 무상사



'평화의 음악-  
하나된 세상'



## 세상을 향한 스승의 가르침

칭하이 무상사 1993년 세계순회강연 시리즈가  
영어판과 중국어판으로 완간되다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가 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책 시리즈가 나왔다. 3개월 남짓한 기간에 28개국을 돌며 진리의 가르침을 펼쳤던 스승의 놀라운 발자취를 좇는 이 여섯 권의 책은 1993년 세계순회강연 중에 행해진 주옥같은 28편의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수록했다.

고귀한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1993년 세계순회강연집은 그런 책들과는 달리 개념과 지식을 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존하는 깨달은 스승으로서 칭하이 무상사는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 우리들이 자신의 고귀한 본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러분은 이 여섯 권의 책을 통해 자비로운 스승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각양각색의 삶을 사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진리의 메시지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석들을 하나하나 캐올리듯 스승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빛을 던져준다. 신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고자 할 때마다 이 책들을 펼쳐보라. 책장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무한한 보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최근에 나온 ‘칭하이 무상사 1993년 세계순회강연’ 중국어판 !!